

태안군 현안과제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태안군의 발전방향과 과제

- 일 시 : 2004. 12. 21(화) 14:00~17:00
- 장 소 : 태안군청 상황실
- 주 최 : 태안군
- 주 관 : 충남발전연구원

◆ 진행 순서 ◆

개 회 식 (14:00~14:22)

- 국민의례
- 인 사 말 씀 진 태 구 태안군수
- 인 사 말 씀 가 기 순 태안군의회 의장
- 인 사 말 씀 박 동 윤 충남도의회 의장
- 인 사 말 씀 김 용 웅 충남발전연구원장
- 충발연 소개 성 태 규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정보팀장

주제 발표 (14:22~15:02)

- 제 1 주제 안면도 꽃지해안공원의 활용방안
 이 충 훈 충남발전연구원 산업디자인팀장
- 제 2 주제 이월간척지를 활용한 엑스포 개최 방안
 이 인 배 충남발전연구원 경제·관광연구부장
- 제 3 주제 관광태안의 경관관리 방안
 한 상 욱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조 봉 운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 4 주제 태안해양웰빙시티 발전방향
 박 철 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임 명 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15:02~15:42)

군정현안 자유토론(15:42~16:42)

종합정리 및 폐회(16:42~17:00)

목 차

□ 제1주제 : 안면도 꽃지해안공원의 활용방안

I. 서론	3
II. 경쟁력 분석 및 당위성	5
III. 추진방안 및 구성요소	13
IV. 정책제언	19

□ 제2주제 : 이원간척지를 활용한 엑스포 개최 방안

I. 왜 엑스포를 준비해야 하는가	23
II. 태안의 엑스포 개최환경은 어떠한가	24
III. 이원간척지구 세계화훼엑스포 개최 방안	42
IV. 결론 및 정책제언	54
[참고문헌]	56

□ 제3주제 : 관광태안의 경관관리 방안

I. 경관관리는 왜 필요한가?	59
II. 경관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64
III. 선진정책사례	68
IV. 태안군의 경관관리 방향	71

□ 제4주제 : 태안해양웰빙시티 발전방향

I. 웰빙바람... 더 건강하게 더 여유롭게	77
II. 웰빙의 개념과 도입사례	80
III. 「태안해양웰빙시티 발전구상 및 전략」 검토	91
IV. 태안군의 실천방안	95
[참고문헌]	103

제1주제

안면도 꽃지해안공원의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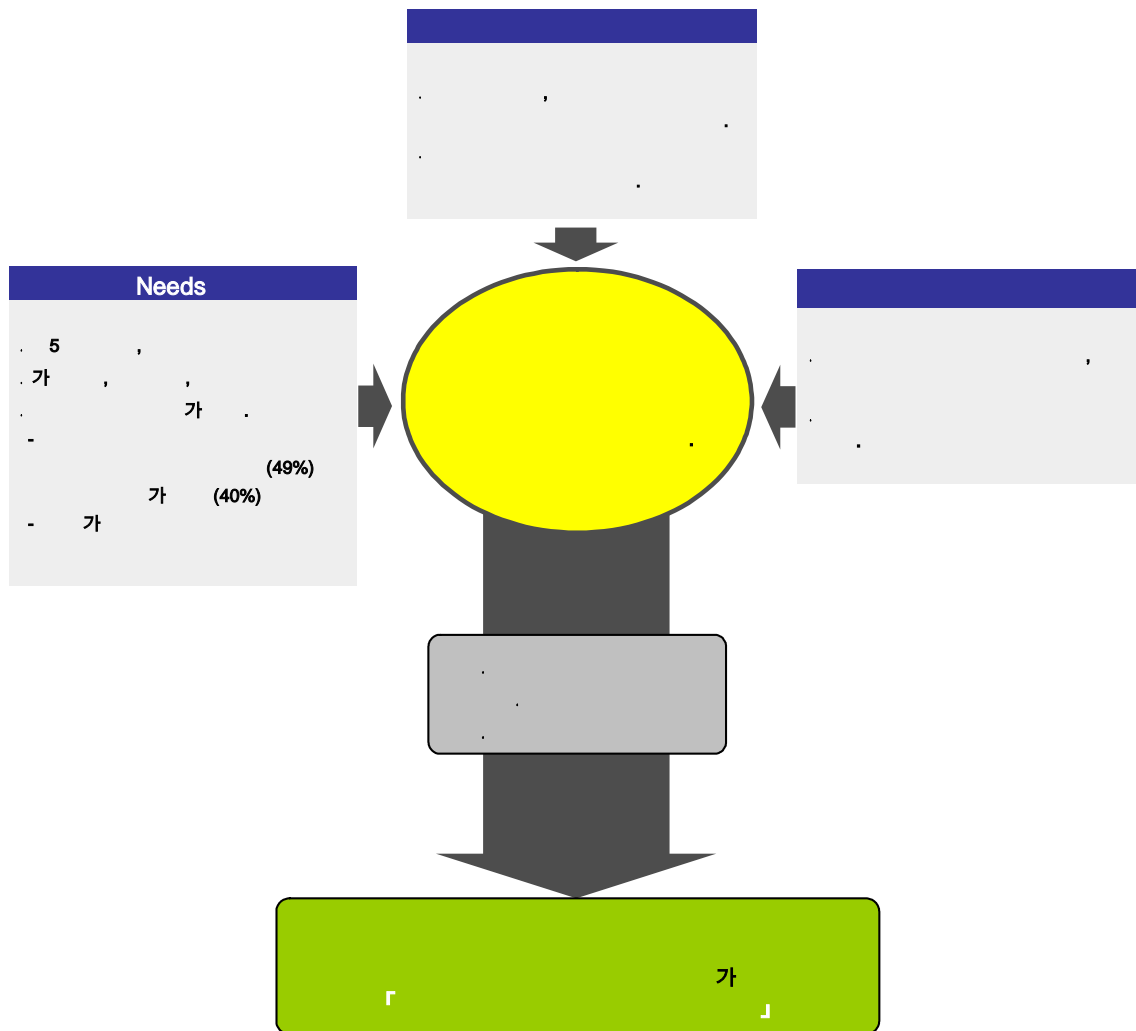
이 충 훈

(충남발전연구원 산업디자인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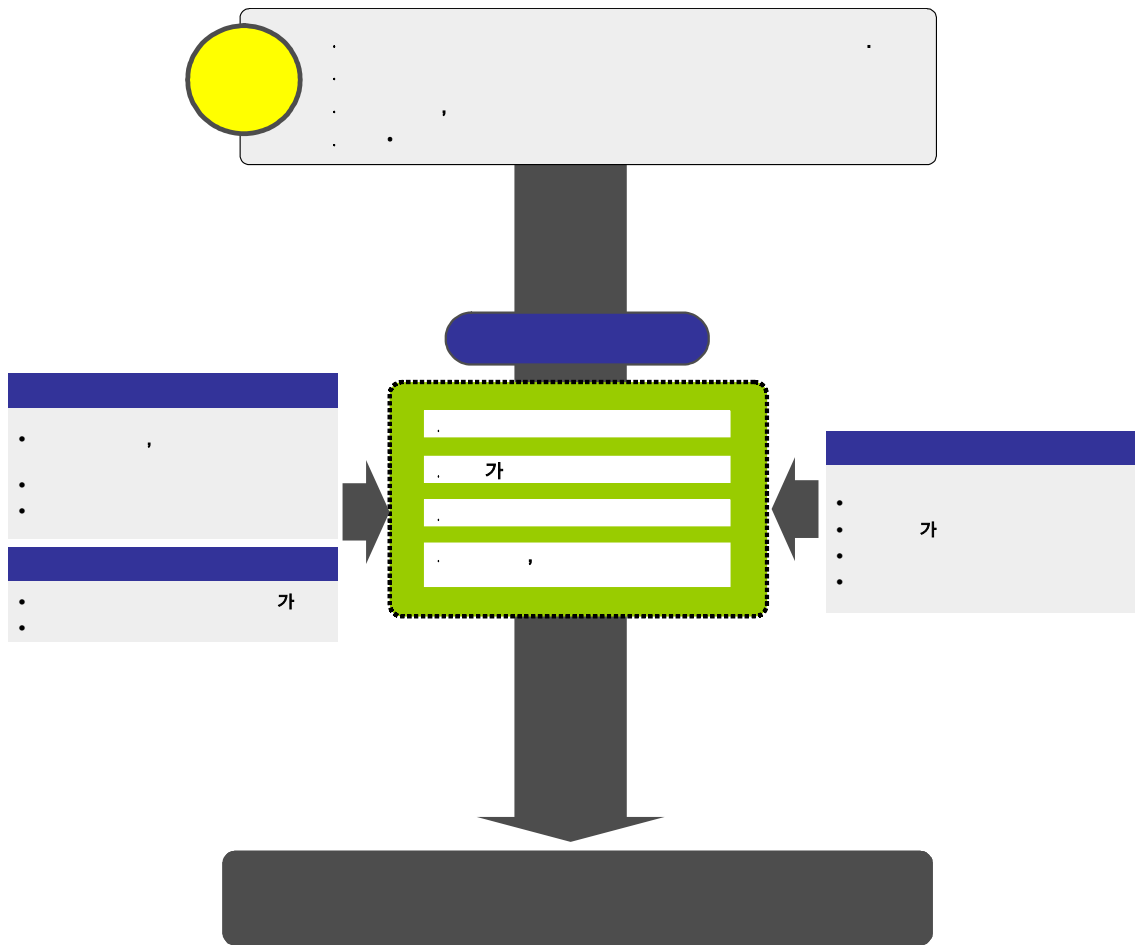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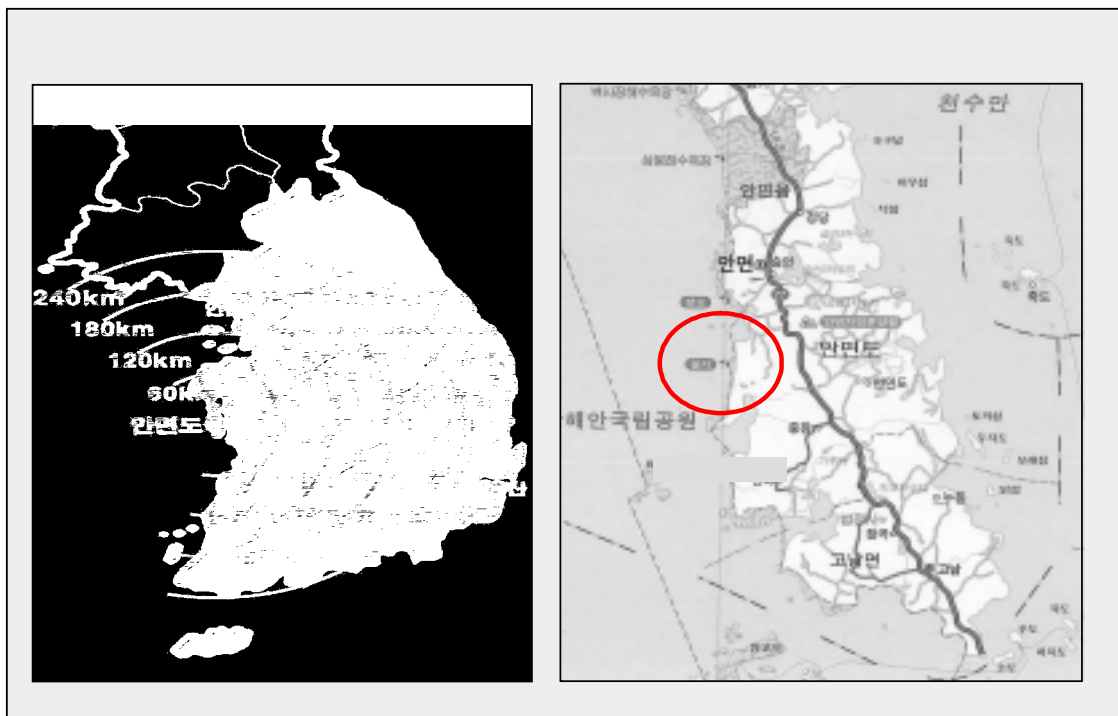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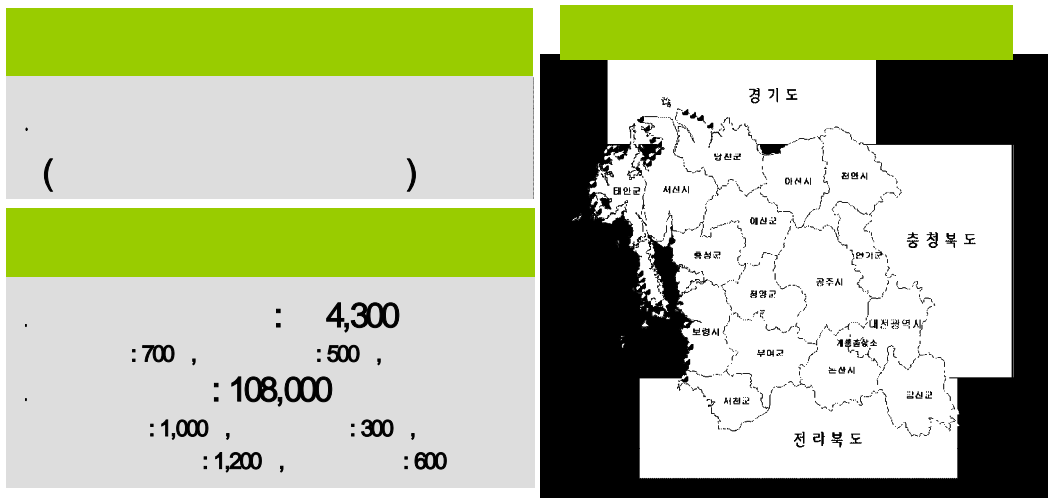
2) 연구의 목적



II. 경쟁력 분석 및 당위성

1. 경쟁력 분석

1) 대상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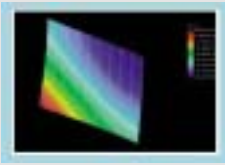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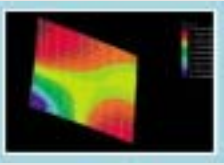
2) 경쟁력 분석 · 전망

경쟁력 분석	전 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조형디자인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산업으로서 소득수준과 문화 생활에 비례하며, 디자인적 고부가가치가 잠재되어 문화 콘텐츠와의 연계성이 높음 ● 대부분 국산원자재(규사, 폐유리)를 이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지니며, 아이디어 집약적이고, 관광산업과 연계성을 지녀 판매에 유리 ● 유리조형작가에게는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유리조형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소재는 기후나 온도의 변화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 불변의 소재로서 빛이 투과와 반사를 할 수 있으며, 조형이 자유로운 가소성, 재생 가능성, 그리고 다양한 색과 텍스처의 표현 등이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예술품의 소재로 효용가치가 큼 ● 유통부분이 개선되면 유리조형 디자인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3) 유리테마공원 조성의 당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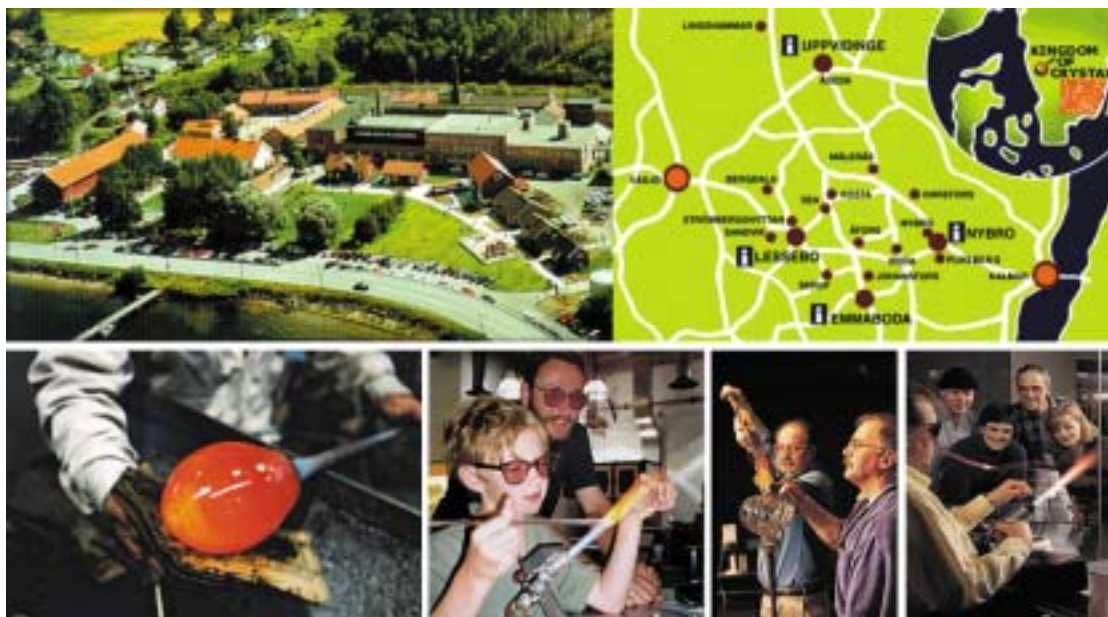
4) 유리 소재의 적합성

유지 및 관리상의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리조형시설물 설치시 사용되는 유리들은 적절한 열처리로 판유리의 내장응력의 크기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억제하고, 또한 열처리가 안 된 보통의 판유리보다 다섯 배 정도의 내충격 강도를 가지며 무게에 견디는 힘은 3~4배 정도• 라미라이트 유리를 사용했을 경우 최소 두 장의 판유리 사이에 투명하면서도 접착성이 강한 폴리비닐부티랄 필름(poly-vinyl butyral film)을 삽입하고 진공상태에서 판유리 사이에 있는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에 온도와 압력을 높여 완벽하게 밀착시켜 제작• 해풍이나 바닷물의 침투를 막아 시야를 보호해 줄 수 있으며, 충격흡수력이 매우 우수하여 쉽게 파손되지 않고, 충격으로 파손되더라도 필름이 유리파편의 비산을 방지하여 안전함• 유리조형물 설치시 SPG(Special Point Glazing)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프레임이나 구조용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탁월한 안전성을 유지하며, 뛰어난 디자인으로 건축물의 자연미를 극대화• SPG시스템은 특수가공한 볼트를 접시머리 모양으로 가공된 홀에 결합시키기 때문에 유리 표면이 외견상 평탄하며, 구조물을 지탱하는 최신 공법으로 안전성을 확보• 강렬한 태양광에도 변형, 또는 부식이 되지 않으며, 훼손이 없도록 설계되어 장기간 외부 노출에도 잘 견디고, 여러 개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높이 및 폭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개별 파손시에도 용이하게 교체가 가능	<div><p>· 일반유리의 파손모양</p></div> <div><p>· 유리조형물 설치시 사용될 유리의 파손모양</p></div> <div><p>· 라미라이트 단면도</p></div> <div><p>· SPG 시스템 사용 유리조형 예시</p></div> <div><p>· SPG 볼트 분해도</p></div> <div><p>· 힘의 종류와 반발</p></div> <div><p>· 뒤틀림(deflection)</p></div> <div><p>· 스트레스(stress)</p></div>
유리 소재의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리소재는 화려하지만 천박하지 않고, 담백한 면이 있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으며, 힘이 느껴지고 신비로움을 나타내며, 빛의 투과력이 높아 해안 테마공원 조성시 사계절 태양빛과 시시각각 조명의 변화를 이용해 방문객들에게 시각적 다양함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소가치가 대단히 큼	

2. 사례연구

1) 해외사례(1) - 스웨덴 “크리스털 왕국”

<p>설립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기 중반의 신산업으로 유리공예가 등장하여 지속적인 성장 • 맑고 깨끗한 호수 등의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유리산업을 활성화 • 스웨덴 남부 스모란드 지방의 16개 크리스털 단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광상품화 목적으로 조성 •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스타(Kosta), 오레포스(Orrefors), 베리다라(Bergdala) 등의 글라스 공방이 산재 • 테마관광 여행지로서 전시장, 유리박물관, 유리조형학교, 전통음식점 등 시설
<p>도입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조형 작업실 : 제품으로 완성되는 제작과정 소개 • 전시장, 박물관 : 유리조형작가의 작품 전시 및 판매 • 레스토랑 : 전통파티 히칠(hyttisill)의 관광 상품화 • 유리전문학교 : 유리조형전문가 양성소로 볼거리 제공 • 뮤직페스티벌 : 매년 여름 100개 이상의 이벤트 개최 오페라, 민속음악, 브라스밴드, 합창 등 다채로운 음악 감상 기회 제공
<p>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작가의 유리작품 제작과정 관광상품화 • 전원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연간50만명) • 요네스 공방 연간 매출액 약 100억원, 전세계 300여개 지점망 • 니브로산 유리조형 제품 45% 수출



2) 해외사례(2) - 베네치아 “무라노 섬” 유리공예

<p>설립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세기부터 동방에서 도입한 유리공예로 “베네치안 글라스”의 명성 유지 • 유리원료 조달이 용이하고, 유럽왕실과 귀족들로부터 고급 예술품으로 인정받음 • 장인들의 기술 유출을 금지시켜 특유의 제조기법 보존
<p>도입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공방 : 1,000여개의 공방이 밀집되어 있으며, 2~3명의 장인들이 전통기법으로 작업, 참여 가능 • 대형 유리전시실 : 유리제품 전시, 판매 • 가면 판매시설 : 300가지의 각종 가면 제작 전시, 베니스 영화제 등 홍보
<p>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베네치아 유리”의 명성 유지 • 해마다 3백 60만명의 관광객 방문



3) 해외사례(3) - 보헤미아 크리스탈 공예

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세 보헤미아 삼림 숲속에서 만들어진 보헤미아 유리는 "마술이다"라는 명성과 함께 이탈리아 베네치아 유리를 능가하는 제품으로 유럽최고 수준 • 중부유럽 보헤미아지방에서 14세기부터 유리가마가 개설되어 16세기 말 고도의 투명도를 가진 양질의 "크리스탈 글라스" 생산 • 보헤미아 지역은 과거 바다 속에 잠겨있다가 빙하기를 거쳐 올창한 삼림으로 변화된 곳으로, 질 좋은 규사를 함유한 사암과 풍부한 삼림에서 원료가 되는 재를 확보하기 수월 • 16세기 후반 함스부르크 왕가의 보헤미아 유리 장려 정책
대 표 적 유리공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롤로비 바리(Karlovy Vary)의 모세르(Moser) 유리 공방은 세계 최고의 보헤미아 유리와 도자기 제품을 생산·판매 • 노비보르, 포데브라리 크리스탈 공방에서는 호화롭게 장식된 유리제품 생산·판매 • 프라하의 황금소로는 17세기 금 세공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보헤미아 유리제품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거리로 특화
보헤미아 유리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헤미아의 유리장인들이 개발한 크리스탈 기법을 적용한 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은색을 띄는 히아리스(Hyalith : 그리스어로 유리) - 유리와 빨간색을 띄는 "루비글라스" - 유리표면을 갈아 장식하는 "바퀴새김(Wheel-engraving)" 기법



4) 해외사례(4) - 일본 나가하마시 “구로가베” 유리공예

<p>설립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나가하마시와 민간기업체가 출자하여 “구로가베 주식회사” 설립, 유럽에서 성행한 유리제조와 판매사업을 도입하여 지역산업과는 연관이 없던 새로운 사업을 시행 • 유서깊은 “구로가베 은행” 건물을 복원하여 구로가베 유리관 오픈 • 유리공예 체험을 통한 이해도 증진 및 홍보 •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p>도 입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로잉으로 유리를 제작, 판매하는 유리공방 • 유리공예 전시관 : 일본풍의 유리공예작품 상설전시 판매 • 유리 아트리에 : 유리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제공 • 유리대학강좌 : 일일체험교실에서 오리지널 작품을 만드는 체험 • 프랑스 전문 레스토랑 : 개장 한달만에 관광객 2만명 유치 • 라덴베그르관 :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유행하는 유리에 조각을 하는 엔그레빈 기법(회전하는 원판 지식에 유리를 놓고 그 유리의 표면에 조각을 하는 기법)을 사용한 상품판매
<p>효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축된 도심상권의 부활 • 관련산업 진흥과 네트워크 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구로가베 스퀘어 개장과 함께 현재 28개 점포 운영



5) 해외사례(5) - 일본 이시카와 현 “전통 공예촌”

<p>설립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노쿠니 노모리 테마파크 단지는 13만평의 전통공예촌으로 조성 • 금박, 칠기, 유리, 염색, 목공, 종이공예관 등의 상설 전시관 및 판매장으로 구성 • 일본의 옛 생활상과 전통공예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관광객 유치
<p>도 입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 공예관 : 재떨이, 컵, 접시, 상자 등 불투명 유리 모양으로 체험 • 일본 종이체험관 • 금박관 • 야생풀 정원 • 꼬끼오 마을 • 상가관 • 다도관 • 도자기 녹로관 • 칠기관 • 어린이 나라 랜드 • 일본 과자관
<p>효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축된 도심상권의 부활 • 관련산업 진흥과 네트워크 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Ⅲ. 추진 방안 및 구성요소

1. 추진 방안

1) 유리테마공원의 추진방안

● 국내·외 유리조형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 국내·외 유리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다양한 외국의 기술정보와 280여개의 유리관련 업체와 협력
(남서울대 유리조형연구소, 유리관련업체, 유리조형작가와의 협력체제 구축)

● B·I (Brand Identity)

- 해안테마공원의 유리시설물 및 환경디자인은 외부공간에 노출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전략화시켜 B·I (Brand Identity) 디자인 개발을 통한 일관된 해안테마공원의 이미지 체계화 필요

●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문화상품의 개발

- 지역의 역사, 문화와 특산물 소재를 활용한 유리문화상품 디자인을 개발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정착시키며, 해외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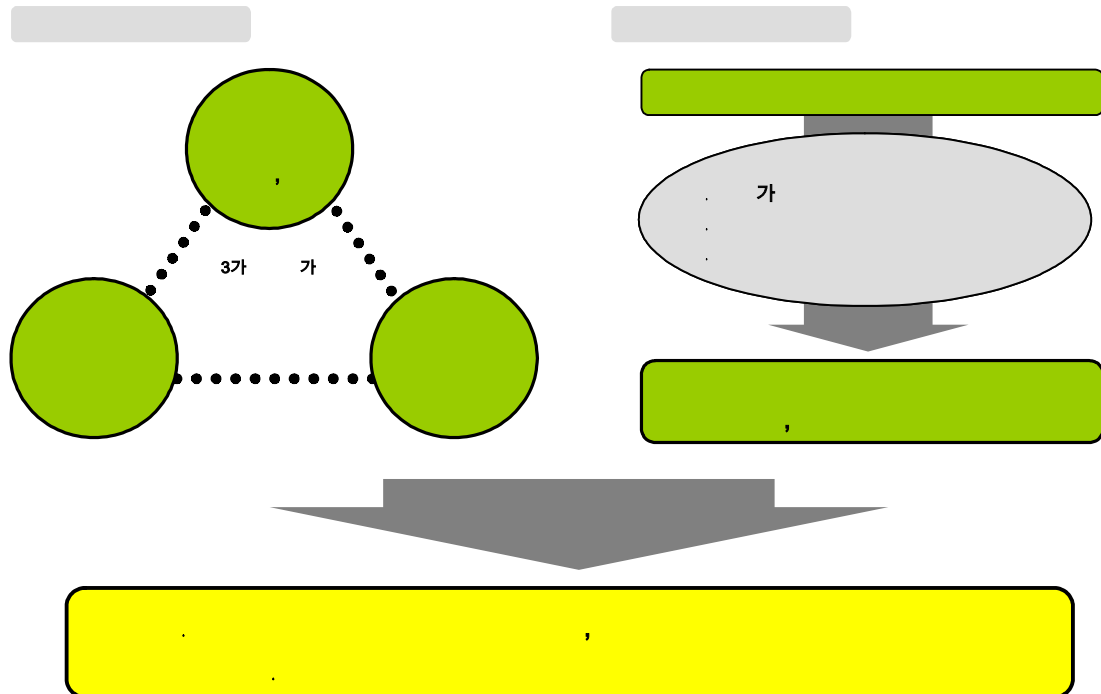
● 주민의 이해와 참여 유도

- 유리조형디자인 시설물의 도입을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리문화에 관련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관·학·연 네트워크 구성

- 충남발전연구원 :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과 자료수집, 이미지 통일화를 위한 B·I (Brand Identity) 도입
유리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바다와 꽃과 유리를 접목하기 위한 유리 콘텐츠 구상
기본구상도 및 시뮬레이션 전개, 해안공원 가로환경디자인
- 유리조형연구소 : 유리학습체험관(공방) 운영과 기술지원을 통해 유리문화 홍보 및 전문인력 육성
유리조형작가의 유치방안과 유리기술지원 방안 모색, 유리조형에 대한 해외기술자료 조사
유리문화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대학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
- 태 안 군 : 지역특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개발시 예산조달방안, 현황자료 제공 및 개발계획 수립

2) 유리테마공원의 구성요소



3) 스토리 라인



2. 구성요소

1) 유리조형시설(1)

● 유리상징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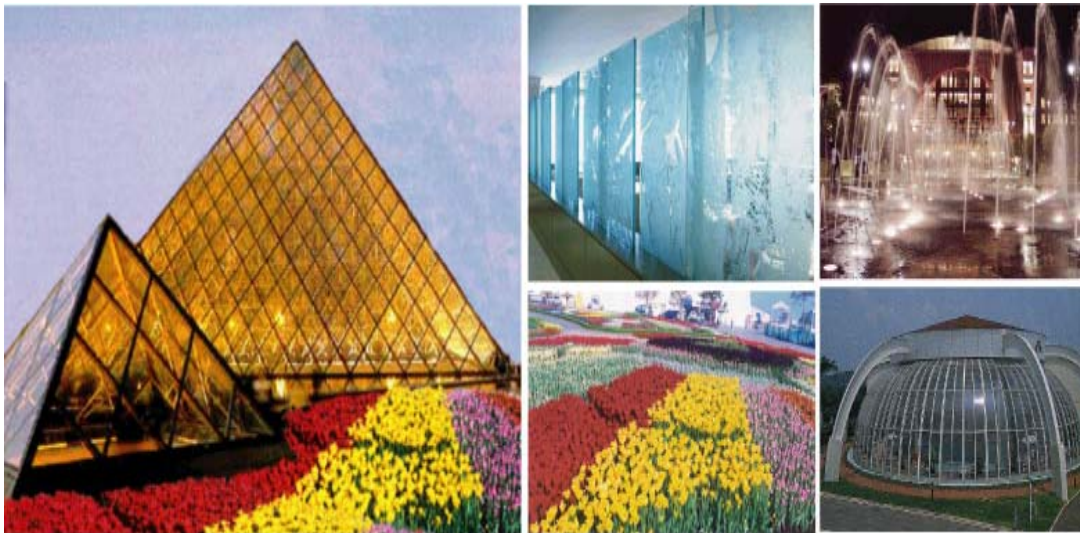
- 바닷가 노을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분위기 연출
- 꽃지 해안공원 앞 할미, 할아비 바위와 하나로 어우러지는 명소로 정착
- 내부에 조명등을 설치, 야간에도 시각적 볼거리 제공

● 유리미로

- 미로화된 유리벽을 만들어 관광객이 직접 체험
- 야간조명을 활용하여 색다른 시각적 효과 부여
- 꽃과 유리의 조화를 통해 신비로움과 미지의 세계를 체험

● 유리식물원

- 안면도의 화훼류, 신두리 사구의 야생화와 식물들을 유리 재료로 램프워킹 제작 전시



2) 유리조형시설(2)

● 유리카페테리아

- 조형연구소에서 제작된 색상과 디자인이 독특한 유리 인테리어 소품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카페테리아 설치

● 유리조각공원

- 전문작가의 유리조각작품을 30여점씩 5년간 150여점 테마공원 내에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유리조형예술작품 감상기회 제공

● 유리경관 조명시설

- 바닷가에 조명을 비춰 빛을 이용한 환상적인 야간 경관 이미지 연출
- 해안공원 앞 해안도로에 유리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경관 이미지 연출

● 유리조형연구소

- 지역대학 유리조형연구소의 유리에 대한 기술, 학술정보 제공으로 유리조형 문화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제작기법, 유리문화 상품 개발 연구



3) 유리조형체험시설(3)

● 유리공방

● 램프워킹(Lamp Working)

- 체험형식의 유리공방으로서 관람객이 직접 제작
- 모래티, 파이렉스 등 유리봉을 램프워킹 토치로 녹여 장식용품 제작

● 퓨징(Fusing)

- 유리접시나 소품, 악세서리를 각자의 취향대로 디자인 및 제작
- 장시간의 가마작업 필요로 체험 숙박관광객 유치 가능

● 블로잉(Blowing)

- 1450도의 고온에서 액체상태로 녹아있는 유리를 불대로 풍선처럼 불어 공예품을 만드는 작업으로 관광객에게 흥미를 유발



4) 가로환경디자인

- 유리를 소재로 한 가로환경시설물을 조성하여 유리테마공원의 환경이미지 통일화 필요
- 가로환경 디자인시 고려되는 사항으로 심미성, 가독성, 식별성, 공공성, 체계성을 갖추도록 하며, Sign 이용자의 조망시점을 감안하여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 등의 시점에 따른 Sign의 크기, 형태, 색채를 확정

● 통행로 사인 디자인

- 지역적 특성 및 Identity를 살려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도록 구성
- Identity, 심미성, 기능성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인근지역과 자연스런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함
- Paving은 단일 디자인으로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요소가 아니므로 B·I 개념 하에 구성요소를 동시에 계획

● 상징조형물 디자인

- 기념조형물은 해안공원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공원의 이미지와 내용을 내포하도록 해야 함
- 공간배치에 있어서 공적 특성이 강한 조형물은 다중집합장소 및 그 상징적 의미가 큰 장소에 배치

● 휴게시설 디자인

● 조명시설 디자인



● 옥외사인 디자인

● 조경시설 디자인



IV. 정책제언

1. 결론

- 안면도 꽃지 해안공원 테마파크지구 계획 수립시 해안가 유리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지역특화 이미지를 형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유리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 유리문화상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해외 수출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며 문화공동체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꽃지 해안공원을 서해안권 관광거점의 체험관광지로 꽃 이벤트 행사와 병행하여 유리조형시설로 구성된 테마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역의 특화를 위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유리조형문화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지역 이미지로 정착 될 것임
- 유리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조성 잠재력 및 수요분석, 유리테마공원의 산업화 방안 등 타당성 분석은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제2주제

이원간척지를 활용한
엑스포 개최 방안

이 인 배

(충남발전연구원 경제·관광연구부장)

1. 왜 엑스포를 준비해야 하는가?

1. 태안관광의 잠재력을 제고할 이벤트 개최

- 태안군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연중 1,50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해안 최대 관광지로서 부상
- 태안해안국립공원 중심의 해안경관과 도서, 역사문화유적, 해수욕장, 사구·갯벌과 같은 생태자원 등 특화된 관광자원이 발달하여 개발의 잠재력이 매우 높음
- 태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태안의 꽃과 바다, 청정한 자연환경, 웰빙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테마형 복합관광지의 조성과 이에 적합한 이벤트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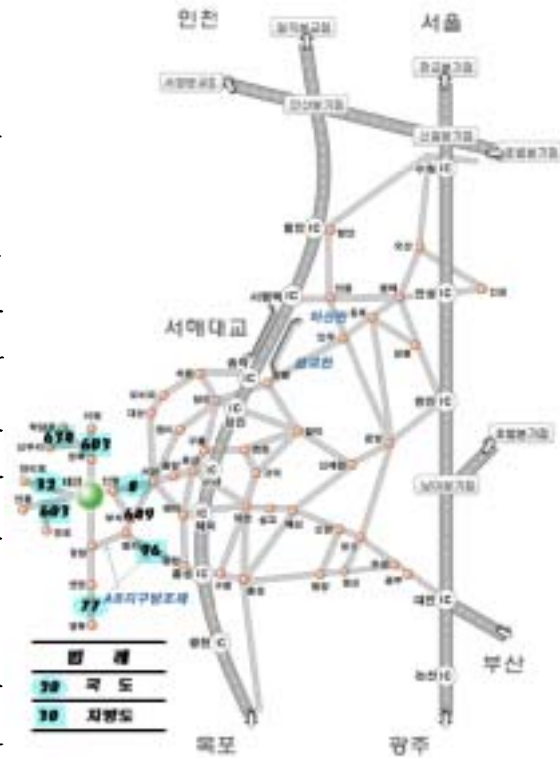
2. 산업과 관광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 태안군에 대규모로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대단위 테마형 관광지의 발굴
- 현대적 관광패턴에서 생태체험, 녹색관광 등을 선호하고, 주5일 근무제의 실시에 따른 웰빙 관광수요를 연중 수용할 수 있는 친환경 레저공간의 조성방안을 모색
-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면서 지역화훼산업을 육성하고, 간척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관광과 농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II. 태안의 엑스포 개최 환경은 어떠한가

1. 서해안의 양호한 관광입지조건 보유

- 환황해권 관광시장의 급부상과 문화·환경 시대의 전개에 따른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태안군 지역의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서해안고속도로 해미·홍성 IC에서 30km권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이 2시간대 내에 속하며, 서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연계발전을 주도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신설되고, 서해안산업관광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안면~보령 및 서산 대산~태안 이원간 연육교가 가설되면 광역적 접근 체계가 좋아질 전망이다
- 태안군 행정구역은 2개 읍(태안읍, 안면읍), 6개 면(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구역상 179개 행정리와 65개 법정리가 있으며, 792개 반으로 구성
- 2002년 현재 충청남도 인구는 1,919천명/666천세대로 전국인구의 4.0%를 점유하며, 태안군의 인구는 67,947인/23,586세대로 충청남도의 3.5%임
- 지목별 토지이용형태를 충남과 비교하면, 태안군의 전체 토지면적은 충남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농업적 토지이용은 35.5%로 충



남의 32.3%보다 높게 이용되고 있지만, 도시적 토지이용의 경우 4.3%로 나타나 충남에 비해서 낮은 토지이용을 나타내고, 태안군의 임야 비중은 48.2%로 충남평균 52.4%보다 약간 낮은 편임

- 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외부와 의 간선교통체계는 잘 구축되었으나, 지역내 교통체계는 나갈 때는 들어온 길로 되돌아 나가는 일방향 체제로 연결기능이 미흡
- 태안에는 무역항 1곳(태안항), 국가어항 2곳(안흥항, 모항항), 지방어항 12곳(백사장, 몽대포 등), 어촌정주항 7곳(만대 등)의 어항이 있음
- 2001년 태안군의 15세 이상 인구는 56,879인이며, 이중 고용인구를 기준으로 한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47,445인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81.0%임. 산업별 취업인구의 변화상황을 보면 1, 2차 산업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3차산업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태안군은 백화산을 중심으로 북쪽에 산악지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저산성 구릉지대로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백화산을 제외하면 표고 100m미만의 완만한 구릉지 및 평탄지로 형성
- 지리적인 여건 및 계절적인 특성으로 다양한 식물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 천연기념물(제138호)로 지정되어 있는 모감주나무 군락지를 비롯한 굴거리나무, 서울제비꽃, 새우난초, 동백나무군락, 사철나무, 줄사철나무, 순기비나무 등은 특이한 지역 자원임.

2. 풍부한 관광자원과 1,500만명 이상 관광객 방문

-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태안군의 대표적인 태안8경은 태안군의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인접한 관광자원의 거점 역할을 담당. 관내 지역 8경으로는 안흥8경, 관송8경, 소원 8경, 수룡8경, 대기8경, 안

면8경, 석우8경이 있어 태안반도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경관을 자랑하고 있음

- 태안군에는 530.8km에 달하는 리아스식 해안선을 따라 크고 작은 해수욕장들이 다수 분포하여 여름철의 관광수요가 매우 높고, 특히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집중하는 서해의 대표적인 만리포, 몽산포, 꽃지해수욕장이 입지
- 태안군의 31개 해수욕장은 소원면 8개소, 근흥면 2개소, 남면 4개소, 안면읍 9개소, 고남면 3개소, 원북면 3개소, 이원면 2개소로 소원면과 안면읍에 편중되어 분포
-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북쪽의 가로림만, 남쪽의 안면도(安眠島)에 이르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육지면적 36.274km², 해상면적 290.30km²임. 태안해안국립공원은 복잡한 리아스식 구조로 해안을 따라 천리포·만리포·연포·몽산포 등 해수욕장이 기암절벽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룸
- 태안군의 도서는 119개소로 유인도서와 무인도서 대부분이 천혜의 관광자원이고, 주변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되어 입체적인 관광루트를 형성하고 있음
- 주요 관광 섬들은 여객선이나 유람선에 의한 경관 감상과 바다낚시 등으로 유명하고, 주요 항 포구와 연결되어 태안군의 특색음식을 즐길 수 있음
- 태안반도의 낙조는 10월 중순에서 11월 말에 절정을 이루고 관광객들에게 낭만적인 바다의 정취를 제공함. 안면도 승언리 꽃지해변의 낙조는 2개의 바위섬 중앙에 태양이 떨어질 때 할미·할아비 바위의 경관과 붉은 빛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룸



- 태안반도는 아름다운 태안해안국립공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어 해안선은 관광자원과 훌륭한 낚시터를 제공.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태안해안은 입질이 좋고, 씨알이 굵어 주말이나 연휴 할 것 없이 평상시에도 낚시꾼들이 찾음

- 태안군의 갯벌은 102.1km²로 경관이 뛰어나고 대부분의 어패류의 산란장이자 해양생태계의 기본을 이루는 곳이어서 천연의 생태학습장을 제공하고, 낙지, 해삼, 골뱅이, 바지락, 맛살, 맛조개, 게조개 등을 직접 잡을 수 있음

- 해안은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아주 원시적인 고기잡이 방법인 독살이 많이 분포해 있는데, 안면도의 밧개, 근흥면의 마도, 소원면의 개목, 원북면의 안피, 이원면의 사목 등은 지금까지 형태가 온전히 보존. 현재는 유일하게 태안군 남면 몽산리 굴혈독살만이 3대째 그 어로법이 이어지고 있음

- 태안군을 대표하는 주요 산악은 백화산, 철마산, 이화산, 도기산, 가재산, 군관산, 건지미산, 후망봉, 묵송산, 봉환산 등이 있음

- 태안군에 안면도 자연휴양림 1개소가 있는데, 안면도 자연휴양림은 국내 유일의 소나무 단순림으로서 수령 100년 내외의 소나무 천연림이 430ha에 집단적으로 울창하게 자라고 있고, 고려 때부터 궁재와 배를 짓는데 주로 사용하였으나 도·남벌이 심해지자 조선 중종 때부터 "황장봉산"으로 봉하여 왕실에서 특별 관리하였음



- 태안군에는 1979년에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천리포수목원이 입지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등 60여 개국으로부터 수집된 식물들은 목련을 비롯하여 약 6,686종에 이릅니다(1999년 4. 18일 기준)
- 꽃지해안공원은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장소로서 지역명소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남면에는 일반인들에게 생태체험을 제공해주는 청산수목원이 있음
- 태안군의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 1개, 천연기념물 3개, 지방지정문화재로 유형문화재 5개, 기념물 6개, 민속자료 1개, 무형문화재 2개와 문화재자료 4개가 있음
- 태안군은 지역의 전통과 특산물, 관광자원 등과 연계된 다수의 축제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상품으로서의 개발을 추진하고, 태안지역은 바다와 농경지를 바탕으로 한 각종 특산물이 사계절 풍성한 고장으로 지역민들은 깨끗하고 싱싱하며 정직한 상품을 공급함.
- 태안의 특색음식으로는 각종 해산물이 계절별, 지역별로 아주 풍부하며, 거의 대부분이 자연산 해물인 생선회, 실치회, 낙지탕, 꽃게, 물오징어 등이며, 특히 가을철에 안면도 백사장항의 자연산 대하와 원북면 이원면의 밀국낙지탕, 신진도의 물오징어는 전국적으로 유명
- 태안군의 국내관광객수는 1996년 7,005천명에서 2001년 11,148천명으로 연평균 9.74%씩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내국인이 14,645,050명, 외국인이 36,929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충남대비 구성비는 1996년 17.9%에서 2001년 20.3%로 증가하여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199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2002안면도 꽃박람회를 계기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 꽃박람회의 성공과 화훼산업의 전략적 육성

- 충남의 화훼 재배농가는 2000년 현재 918호에 달하고 전국화훼재배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안면도 태안지역을 중심으로 농가가 밀집하여 주산지를 이루고 있고, 재배면적은 520ha에 달하며 시설면적은 233ha임
- 2000년에 461억원의 화훼류를 생산했는데 절화류가 45.3%를 차지한 209억원, 분화류가 36.5%인 168억원, 관상류가 12.6%인 58억원이 순으로 절화류 생산비중이 높음
- 충남의 품목별 화훼생산량은 1999년에 장미 전국 6위(4.5%), 국화 전국 3위(10.3%), 백합 전국 4위(5.0%) 등으로 나타났고, 2000년의 특화계수에 의한 경쟁력 분석에서 특화계수가 1 이상인 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백합, 안개꽃 등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화훼류는 도약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수도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온난한 해양성 기후를 가진 서해안권을 화훼주산지로 육성하면 화훼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음
- 태안군에서 화훼를 재배하기 시작한 때는 '79년으로 1농가에서 안개초 및 튜울립을 재배하고, '83년 6농가가 작목반을 구성 본격적인 화훼재배가 시작됨
- 국화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85년경으로 처음에는 스텐다드형인 천수, 명문을 재배하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에 은설, 동지황 등 현재 주종을 이루고 있는 스프레이 계통이 재배되기 시작하였음
- 태안군 화훼재배 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난 계기는 '91년 성장작목단지 조성사업(3개 읍·면 50호, 22,234평, 50억)이 추진이었으며, 화종은 현재 주재배 화종인 장미, 국화, 안개초, 양란, 스타티스, 글라디올러스,

석죽 등이 있음

- '99년 기준 6개 읍면 150ha(시설 90, 노지 60)에 273농가가 화훼를 재배하고 있으며 시설은 유리 2ha, PC 1.1ha를 제외하고는 PE온실(1-2W아취형 연동 40%, 둥근지붕형 연동·단동 60%)임
- 태안군의 화훼산업은 백합, 장미, 난, 국화, 안개꽃 등 다양한 화훼류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으며, 재배되는 꽃들 대부분은 일본 등 외국으로 수출되거나 대도시에서 소비
- 태안군의 화훼재배 면적은 237ha이며, 재배농가수는 300호로 충남화훼의 40%에 해당
- 화훼재배여건은 봄과 가을이 긴 서늘한 해양성 기후로 절화류는 물론 구근류의 재배 적지에 속하여 화색이 뚜렷하고 남부지역과 중북부 지역의 중간 지역에 위치하여 출하시기 조절이 용이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90년대 초반에 국화를 시작으로 백합, 장미, 양란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음
- 백합은 14ha, 41호의 농가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백합시험장이 관내에 위치하여 농업인과 깊은 연계를 가지고 백합종구 생산단지 조성에 힘을 모으고 있으며, 현재 백만본 수출 목표를 향해 수출백합 연구회를 중심으로 매진하고 있음
- 국화는 64ha, 192호로 화훼 재배 규모가 가장 크며 오랜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시장을 개척, 대국을 중심으로 수출재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프레이국 재배를 계획하고 있음
- 장미는 23ha, 62호의 농가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재배품종 개량을 위해 신품종 입식을 추진하고, 재배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비재배시설과 인공양액재배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태안군의 재배 화훼품목(2003년)

구 분	품 목
절화류	안개초, 국화, 장미, 고데이지, 스타티스, 백합 등 20여종
구근류	글라디올러스, 튤립, 아이리스, 칸나 등
분화류	동양난, 서양난, 선인장 등
관상수류	향나무, 단풍나무, 사철, 주목, 소나무 등

- 화훼류 유통 출하부분에서 현재는 농가별 분산출하를 하고 있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훼종합 물류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 화훼단지 현황(2003년)

지 역	단지명	주 소	주작목	재배면적(ha)	재배농가수(호)
태안읍	장미상옥단지	상옥2리	장미	3	9
	평천화훼마을	평천3리	국화, 안개	15.4	36
남 면	태안원에 영농조합법인	몽산1리	서양란	4.3	5
	남면화훼단지	신장리 몽산리	장미, 국화	19.4	61
원북면	신두화훼단지	신두리	장미, 국화	6	20
소원면	영전화훼단지	영전1리	국화	2.5	7
계	6			50.6	138

자료 : 태안군 내부자료(2003)

- 태안군의 대표적인 화훼단지는 태안읍 2개소, 남면 2개소, 원북면 1개소, 소원면 1개소로 6개소의 화훼단지가 입지. 화훼단지 중에서 남면의 화훼단지가 규모와 재배농가수에서 가장 크고, 인접한 백합시험장과 연계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요 화훼단지의 재배면적은 50.6ha, 재배농가수는 138호임
-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후 매년 이루어지는 안면

도 꽃 축제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충남의 화훼산업이 계획대로 성장할 경우 2010년에 가서는 화훼농가수 1,200농가, 면적 1,240ha, 생산액 850억원에 달하여 전국 3위권의 화훼농업도로 성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충남 화훼산업의 장기전망

연 도	농 가 수 (호)	생산면적 (ha)	생산액(억원)	수출액(천불)	전업농가(호)
1998	799	517.1	353	2,398	90
2002	1,060	690	470	3,190	120
2010	1,200	1,240	850	5,740	220

자료 : 권용대, "충남 화훼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충남 화훼산업 발전 심포지엄, 2002.

4. 국내·외 엑스포는 어떻게 개최되었는가

1) 해외 화훼박람회 사례

(1) 독일 : BUGA99 마그테부르크 정원쇼

- 독일 연방가든쇼는 1926년 에센시의 루르지방의 대정원쇼에서 시작하였고, 1951년부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독일 전 연방차원에서 지역을 바꾸면서 개최되는 대규모 정원쇼임.
- 장소선정에 있어 더 이상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나 궁원 등의 우량한 환경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점임. 오히려 '97년도에 열린 쾰렌

키르헨의 폐광산을 활용한 예라든지, '99년도에 개최된 마그테부르크의 버려진 습지대를 활용한 사례에서 보듯이, 불량한 경관이나 환경 때문에 화훼나 정원에 어울리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적인 면의 부차적인 기능을 오히려 전면에 부각시키는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구동독 마그테부르크에서 개최된 BUGA99는 1999년 4월 23부터 10월 17에 걸쳐 구 동독지역인 작센-안할트주의 주도인 마그테부르크에서 제 25회 연방가든쇼가 개최되었음.
- 꽃박람회가 개최된 마그테부르크 시는 오랜 옛날부터 엘베시로 불렸으며, 1천2백년 전통의 엘베성당과, 전유럽인들의 사랑을 받은 엘베강 비버들의 서식처로써 독일인들에게는 여가활동과 관광의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역사적인 관광과 휴양의 도시임. 마그테부르크에서 꽃박람회가 개최되는 곳은 크레카우 습지대로 불리는 중세시대로부터의 유명한 목초지로써 이곳 450ha의 목초지중 황폐해진 93ha의 지역을 꽃박람회장으로 사용하였음.
- 주요한 단위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실내전시관", "천년의 탑 조성", "호수공연장 조성", "쓰레기매립장 되살리기", "토픽가든", "수목원" "자원식물원" 등이 있음.
- Buga99의 정원과 20여개 전시관에는 사랑스런 봄의 꽃들로부터 화려한 여름의 꽃들까지 다양한 꽃들이 전시되었음. 특히, 철쭉과 분재 등 화목류를 소재로 한 작품들과 주택의 발코니와 실내공간을 아늑하고 다양하게 꾸미는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었음.
- 연방가든쇼는 또한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을 어린이들을 위하여 할애하였으며, 특히, 6월 5~6일에 걸쳐 실시된 비버&어린이 축제기간중에는 꽃박람회를 방문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관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어린이들의 교육적인 목적으로 박람회기간중 상설 운영된 체험이벤트인 "녹색의 길" 프로그램에는 3만3천명의 어린이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꽃박람회는 단순한 꽃전시 행사로 그치지 않고, 행사를 통한 지역발전과 파괴된 생태계의 회복,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의 사회적 이익과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 하겠음.

(2) 중국 : 중국곤명 '99월에박람회

- 곤명꽃박람회는 '99.5.1~10.31(184일) 간에 걸쳐 중국 운남성 금천풍경 명승구 지역의 65만평의 회장 내에서 열렸음. "인간과 자연- 21세기로 들어가며"를 주제로 세계 91개국·단체(65개국, 26개 국제조직)가 참여하여 10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기록하였음. 행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추진기구: 대회장은 국무원 부총리, 조직위원장은 운남성 부성장이 겸임하였고, 사무처 직원 2,000여명 (그중 화훼전문가 300명 배치)

- 개최기간: 1999. 5. 1 ~ 10. 31

- 사업비 : 1조 7,600억원(대회장 조성: 2,600억원,

간접지원시설: 1조 5천억원)

- 65만 4천평에 이르는 박람회장은 5관 6원 3구로 구성된 박람회장은 곤명시 금천풍경명승구내의 야산을 다듬어 65만 4천평 규모로 조성하였음. 회장배치는 5개의 실내 전시관, 6개의 테마가든, 그리고 3개의 특별 실외전시 구역으로 나누어 준비하였음
- 각종 이벤트로 관람객들이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경극 등 중국 고유의 전통 민속극을 소개하고, 중국내 다양한 소수 민족들의 민속공연의 실시와 세계 각지의 참가국들을 대상으로 National Day를

실시하여 전통 예술 등을 공연함

- 6개월간 100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곤명박람회를 위해 중국 정부는 15억위안(한화 2,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음. 중국은 곤명꽃박람회를 통하여 80년대 개방과 개혁 이후의 이룩한 경제 성장의 성과물을 전세계에 내보이고, 천안문사태 등으로 얼룩진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국가 이미지를 화훼로 대표되는 선진문화국의 이미지로 개선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낙후된 내륙오지인 운남성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3) 필리핀 : 제1회 필리핀국제조원박람회(Florikultura)

- 지난 '98년 1월 11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팡팡가주의 산페르난도시에서 동남아시아 최초의 제1회 필리핀국제조원박람회가 개최되었음. 이 꽃박람회는 필리핀의 화훼산업 진흥과 지난 '91년 폭발하여 전세계에 기상이변을 일으켰던 피나투보 화산폭발 피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음.
- 꽃박람회는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로부터 65km 지역에 위치한 팡팡가주의 주도인 산페르난도시의 파스쿠한빌리지에서 개최되었음. 팡팡가주는 마닐라-수빅-클라크로 연결되는 필리핀 경제3각지대가 위치한 필리핀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고 역사 문화적 유산이 풍부한 지역임.
- 이제는 수년간에 걸친 피해복구사업을 통해 주변지역들이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특히 피해가 가장 컸던 안할레마을은 피나투보화산관광특수를 통해 필리핀에서 가장 화려한 야경을 가진 마을로 변하고 있음.
- 또한 꽃박람회가 개최된 파스쿠한 마을은 아키노 정권에 의해 연중 계속하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건설된 세계에서 3개 밖에 없는 크리스마스마을로 건설되었음. 이곳에서는 크리스마스와 필리핀의 역사적 유산들을 전시하며, 12월 중순경의 랜턴축제는 세계

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랜턴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필리핀 관광청과 각종 면세점, 박물관 및 종합 휴게 레저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연중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관광 휴양마을이 되었음. 제1회 필리핀국제꽃박람회는 이러한 시설을 더욱 개발하고,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개최되었음.

- 이 행사는 필리핀 꽃꽂이협회·화훼작물협회와 필리핀 관광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필리핀 항공 등의 협찬하였으며, 북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30여개 국이 참여하여 전세계적인 꽃의 세계를 통하여 박람회의 주제인 "세계의 정원"을 구현하였음.
- 이제 세계의 정원들은 파스쿠한 마을과 팡팡가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음. 또한 출전한 각국들도 자신들의 정원을 세계적으로 3개뿐인 크리스마스마을의 정원으로 영구히 남겨 이곳을 찾는 세계각지의 관광객들에게 자국의 정원양식과 화훼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꽃박람회와 크리스마스마을을 통해 필리핀전체를 생태관광지화 하겠다는 필리핀인들의 의지는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녹색관광(green tourism)시장에서 필리핀의 관광이미지를 높이하고자 하는 필리핀인들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음.

(4) 일본 : 오사카국제꽃박람회

- 1990년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83일간 일본 오사카시에서 개최된 '90오사카국제꽃박람회는 국제박람회사무국(BIE)에서 공인하고 국제화훼생산자협회(AIPH)가 승인한 아시아 최초의 화훼관련 전문박람회로 개최되었음.
- 오사카시는 지난 세기 일본근대화과정과 전쟁준비과정에서의 중공업의 발달로 일본 최대의 공해물질배출도시로써 "스모크의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음. 2차대전의 폐해를 딛고 경제부흥을 시작한 1964년도에는 대규모의 오사카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수백년간에 걸쳐 실행하기로 하였음.

- 이러한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오사카시는 시건립 100주년이 되는 1990년에 지역 내에서 대규모의 국제원예·화훼박람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오사카시의 계획은 당시 세계최고의 산업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일본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1985년 엑스포준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5년간에 걸쳐 총 4천 67억엔(도로등 기반사업비 1천8백억엔, 공원정비 및 국내외 참가자 출전 지원비 1천3백억엔, 박람회 운영사업비 890억엔)의 사업비가 투자된 매머드급의 박람회로 추진되었음.
- 꽃과 녹음과 인간생활과의 관계를 연계하여 21세기를 향한 윤택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창조한다는 목적하에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주제로 추진된 오사카국제꽃박람회는 오사카 중심부로부터 동쪽으로 약 8 km에 위치한 쓰루미공원 42만평의 부지위에서 개최되었음.
- 꽃박람회가 개최되기 이전의 쓰루미공원지역은 과거에는 황량한 늪과 습지대로써 연근밭으로 사용되는 것이 고작이었으며, 이후 오사카시의 도시성장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과 지하철공사 토사매립장으로 사용된 후 쓰루미공원으로 바뀌어 호수와 잔디밭승마장과 광장이 있는 그저 넓은공간에 쓰레기가스가 분출되는 특색없는 공원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쓰루미공원이 꽃박람회를 계기로 오사카를 대표하는 녹지공간으로 바뀌었음.
- 183일간의 박람회가 끝난 후 쓰루미공원은 일시 폐쇄되어 꽃박람회기념공원으로의 복원사업이 진행되었음. 실내전시관과 유흥시설들은 철거되었지만, 생명의 탑과 국제정원을 비롯한 주요시설물들은 오사카시에 기증되어 영구히 관리되고 있고, 넓은 잔디밭과 승마장이 복원되었으며, 꽃박람회를 위해 개통된 쓰루미전철과 수천대의 주차능력

을 갖춘 주차장 등은 쓰루미 공원을 오사카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와서 쉴 수 있는 대표적 시민공원으로 탈바꿈시켰음.

- 최근에는 박물관과 수영장을 갖춘 종합리조트 시설이 들어서 종합휴양시설로 거듭나고 있음. 세계의 꽃과 정원을 통한 꽃박람회는 쓰레기매립장으로 각인된 쓰루미지역의 이미지를 오사카시민들과 전세계인들에게서 완전히 바꾸어 놓는데 성공하였음.

2) 국내 엑스포 사례 ;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Eco-Agriculture/Organic Food Expo Korea, 2005)

(1) 개최배경 및 의의

- 최근들어 친환경농업이 대두되는 것은 비료와 농약에 의한 중산위주의 관행농법이 최근에 이르러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추세와 더불어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의 한 원인이 되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임.
- 친환경농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서 자연생태계 보호와 농가소득 증대, WTO/ FTA 등 국제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이 급부상하고 있음.
-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조건, 친환경 농업의 고장 울진군은,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지금 그 화려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농업용수가 항상 2급수 이상 공급될 수 있는 청정지역이어야 하고, 집단화가 용이한 소규모 경작지가 있는 지역이

어야 하며, 같은 구역내 모든 농가가 참여해야만 가능함. 뿐만 아니라 인근에 대기·수질로 인한 환경오염원이 없어야 하고 퇴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산림자원이 풍부하여야 한다는 것임.

- 울진군은 친환경농업에도 이상적인 환경여건을 충족하고 있음. 울진군은 2004년 10월말 기준으로 식부면적 5,815ha 중 605ha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유기 79ha, 전환기 7ha, 무농약 482ha, 저농약 37ha) 인증을 받았고,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개최되는 2005년까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면적을 경지면적의 27%인 1,500ha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경지면적의 12%인 650ha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전국의 모범적인 친환경농업실천 자치단체로서 발전하고 있음.
- 2005년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25일간 울진 왕피천 엑스포공원을 무대로 펼쳐질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는 해외 20여개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친환경 농업!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란 주제아래 농문화 전시 및 공연, 학술대회, 체험, 상품 개발 등 국내·외 특색 있는 친환경·유기농산물의 모든 것을 직접 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환경생태계를 보전하는 환경친화적인 엑스포를 개최할 것임.

(2) 행사개요

- 주제 : 친환경 농업!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
- 기간 : 2005. 7. 22 ~ 8. 15 (25일간)
- 장소 : 울진 왕피천 엑스포 공원 (206,000 여평)
- 주최 : 경상북도 울진군
- 주관 : (재)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

- 참가국 : 20여개국(미국, 독일, 덴마크, 호주, 네덜란드, 쿠바, 캐나다, 일본, 중국 등)
- 행사내용 : 6개 분야(농업문화, 전시, 공연, 체험, 학술, 상품개발)
- 후원 : 농림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상북도,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KOTRA, 포항MBC, 농민신문사, 한국농어민신문사, 농어민방송,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학회, 한국유기농협회, 환경농업연합회, ARNOA, 월간 환경농업

(3) 주요시설 및 공연행사

○ 주요시설

구 분	시 설 내 용
친환경농업관	친환경·유기농 전시, 멀티영상관
비즈니스관	국내기업·전국지자체 홍보관, 세계유가공제품관
판 매 시 설	친환경·유기농마트, 푸드코트
기 타 시 설	전통문화체험장, 향토음식점, 고우이썬터, 왕피천체험장

○ 공연행사

구 분	행 사 내 용
공 식 행 사	개·폐막식, 개막축하공연
주 제 행 사	주공연, 주제영상, 워터스크린상영
상 설 행 사	해외민속공연단 초청공연, 국립단체초청특별공연, 친환경타악퍼포먼스
체 험 행 사	전통문화체험, 민물고기잡기체험, 친환경농산물게임, 기타농경문화체험
특 별 행 사	친환경농업관련 공모작품 전시, 시군의 날 운영, 천연기념물특별전, 친환경 열린콘서트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조감도



Ⅲ. 이원간척지구 세계화훼엑스포 개최 방안

1. 대상지 여건분석

1) 입지여건

- 태안군의 원북면 이곡·방갈 일원은 과거에는 섬(도서)이었으나 이원간척사업 제방공사에 의한 제방에 연결된 육지의 끝자락에 위치하였고 뒤편에는 태안화력이 위치하고 남쪽으로 이원간척 제방이며 삼면이 청정바다에 접한 곳임
- 간척지의 북측에는 사계절 언제나 출렁이는 청정바다이고 기암괴석의 절경은 서해안 최고의 절경임
- 동쪽으로는 선착장이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고, 바로 앞 갯벌은 바지락 채취 및 각종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체험어장으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음
- 남쪽으로는 이원지구 간척사업에 의한 제방(길이 4.0km)과 연결되어 있으며, 제방에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주변의 체험관광도로로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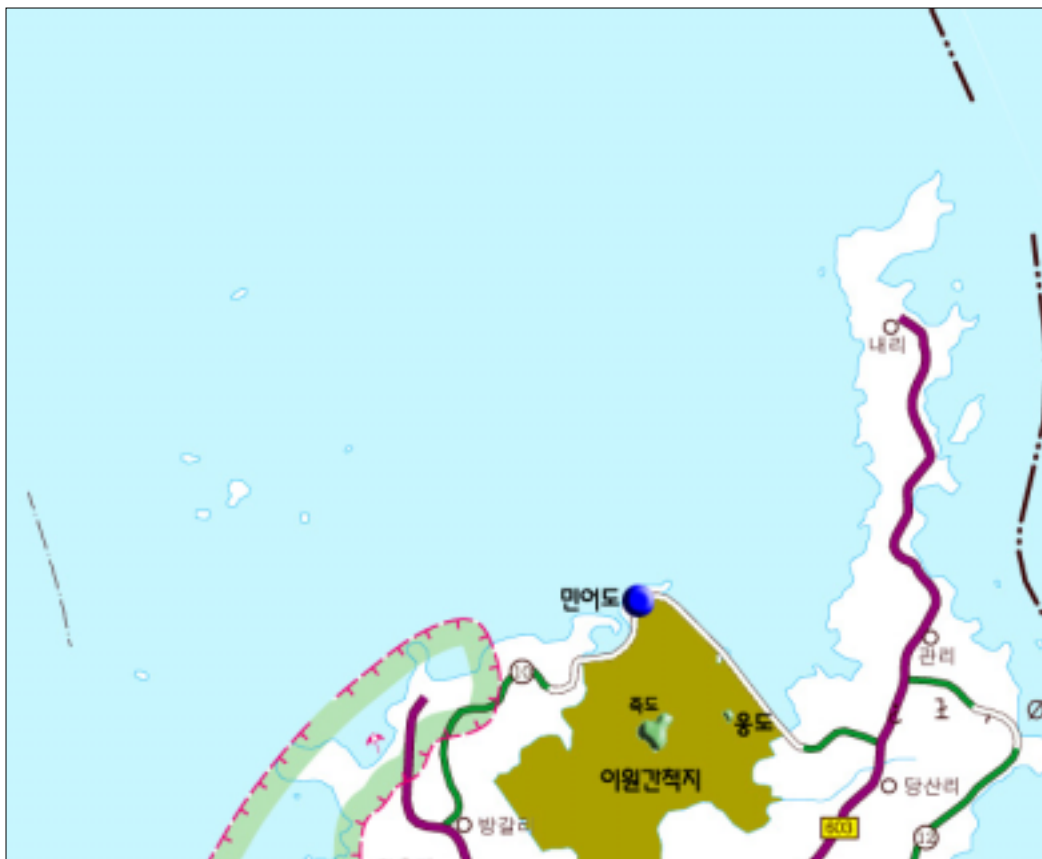
2) 부지현황

- 제방도로는 태안군 북부 해안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이며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별말)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만대)로 연결하여 건설될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도로를 거쳐 이원면 이원간척지 제방도로를 경유하여 원북면 방갈리 학암포 해수욕장 경유 신두리 해수욕장 경유 소원면 소근리 해변을 통과하여 소원면 의항리 만리포 해수욕장까지 연

결되는 태안군 북부 해안도로임

- 서쪽으로는 최첨단 설비를 자랑하는 태안화력이 개발대상지로부터 500m 밖에 자리 잡고 있어 관광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전체 간척지 매립면적은 1,352ha이고 개발면적은 1,224ha임 이중 매립 면적에는 농지조성 777ha, 담수호 290ha, 회사장 285ha이고, 개발면적에는 내부개답 808ha, 염전개답 117ha, 배후지 299ha임
- 특히, 전체 매립면적 1,352ha 중 69.9ha는 태안군에서 "태안 Green Wellbeing 파크조성"을 계획중에 있음

대상부지 위치도



3) 주변자원

- 주변에 항포구가 산재되어 있어 사계절 수산물이 풍부한 곳이며 유명한 해수욕장과 지역마다 특색 있는 크고 작은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고, 해안에 독살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승용차로 5분 거리 이내에 골프장이 조성 추진되고 있으며, 농사체험, 민물낚시체험, 개벌체험, 수산물채취 체험, 바다갯바위 낚시체험, 염전 체험, 해수욕장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2. 태안 세계화훼엑스포 개최 기본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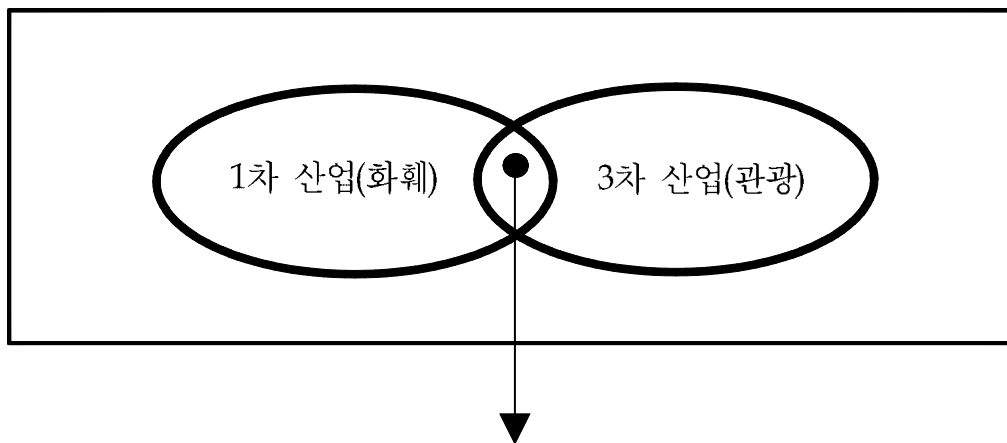
1) 엑스포의 개최목적

- 본 엑스포는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이 후 태안군에 대한 범군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발전의 기폭제이자 자연과 꽃이 아름다운 해안으로 대외에 알리는 마케팅 수단
 - ① 태안관광발전을 위한 범 군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역 이미지 제공
 - ② 화훼와 관광산업의 발전기회 확대 및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
 - ③ 간척지를 이용한 친환경 산업육성과 토지의 고부가가치로 활용
 - ④ 태안군내의 지역적 균형발전과 주변지역 관광자원 활성화 기여
 - ⑤ 태안군을 자연과 꽃, 해안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장소마케팅

2) 엑스포의 성격

- 엑스포의 성격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서 화훼 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태안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화훼 테마공원 조성 and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

“태안의 1차·3차 산업이 조화를 이룬 엑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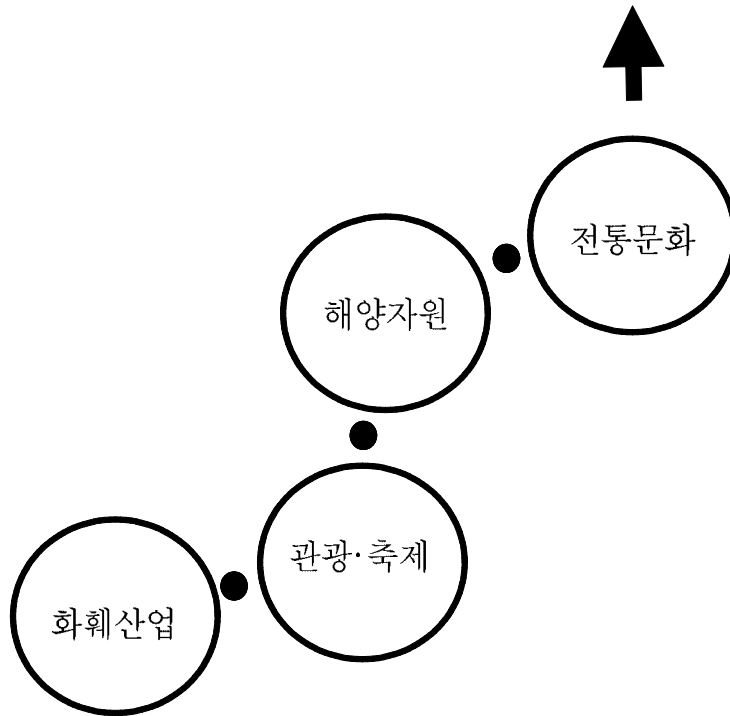
“태안관광을 화훼와 지역문화로 체험하는 종합축제”

- 관광객 : 화훼와 문화관광을 체험하는 테마공간과 이벤트 기회 제공
- 지역주민 : 태안군의 화훼산업과 관광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3) 엑스포의 Theme

- 태안군의 추구하는 해양웰빙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웰빙에 맞는 생활이 가능한 화훼와 질 높은 관광휴양공간제공, 해양관광활동과 지역전통문화의 체험을 통한 “웰빙시대 꽃과 바다의 만남”으로 제시

웰빙 세상, 꽃과 바다와의 만남



4) 엑스포 개최시점

○ 개최연도

- 2007년 또는 2010년

*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2008년 군문화엑스포, 2009년 백제 문화엑스포 등 개최예정 등을 고려

○ 개최일자 : 타당성 검토 후 대안으로 선정

- 봄(튤립 등 구근류 개화 및 봄철 행락철 시기)
- 여름(장미, 백합 등 개화와 해수욕 시기)
- 가을(국화 등 개화와 가을철 행락철 시기)

- 행사기간 : 25일 ~ 30일

5) 엑스포 명칭

- 1안 : 태안 세계화훼엑스포(Taeon International Flower EXPO)
 - * 태안군 꽃박람회 이미지와 화훼재배 육성과 연계
- 2안 : 태안 국제에코엑스포(Taeon International Eco-EXPO)
 - * 꽃, 사구, 갯벌, 섬, 해양 등의 태안군의 생태자원과 연계
 - * 기존에 태안군에서 제안했던 친환경농업엑스포는 울진에서 2005년에 개최함을 고려하여 제시

6) 엑스포의 수요예측

- 목표관람객 설정
 - 약 550,000명
 - * 현 부지는 태안군이 추진중인 그린웰빙파크 조성단지(약 200,000평)의 실제 이용예상 면적(20%)를 고려한 동시수용규모 고려(22,000명). 특히, 주요 시설지의 만족면적 평균인 6㎡를 본 엑스포장의 동시수용단위로 적용함
- 사례검토
 -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경우 1일 평균 25,000명 입장(31일간 80만명 입장).

3. 태안 세계화훼엑스포 개최 기본구상안

1) 엑스포 개요

(1) 행사명칭

- 1안 : 태안 세계화훼엑스포(Taeon International Flower EXPO)
- 2안 : 태안 국제에코엑스포(Taeon International Eco-EXPO)

(2) 행사기간 및 일정

- 1안 : 2007년(국내 꽃축제 이벤트로 엑스포의 전단계 준비)
- 2안 : 2010년(국제 엑스포 대규모 이벤트로 개최)

* 행사일정은 이원간척지에 대규모 식재가 가능한 화훼종이 개화하는 시기로 선정

(3) 행사장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이곡, 방갈 일원(주행사장 50,000평)

(4) 행사성격

- 화훼산업의 비즈니스와 관광의 이벤트 기능을 포괄하는 종합엑스포

(5) 목표관람객

- 내외국인 550,000명

(6) 주최

- 1안 : 충청남도, 태안군(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참가 제안)

(7) 소요예산

- 221억 내외

* 소요예산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245억원), 강원국제관광엑스포(486억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518억원) 등 1인당 평균투자비용 1,004,378원에 일평균입장객을 적용함

(8) 개최목적

- 태안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 특화의 화훼 및 관광산업 육성
- 간척지를 활용한 친환경 테마파크의 조성과 태안 북부권 발전 도모
- 태안군 대표 축제 육성과 “꽃과 바다”의 지역마케팅 추진

2) 행사장 구성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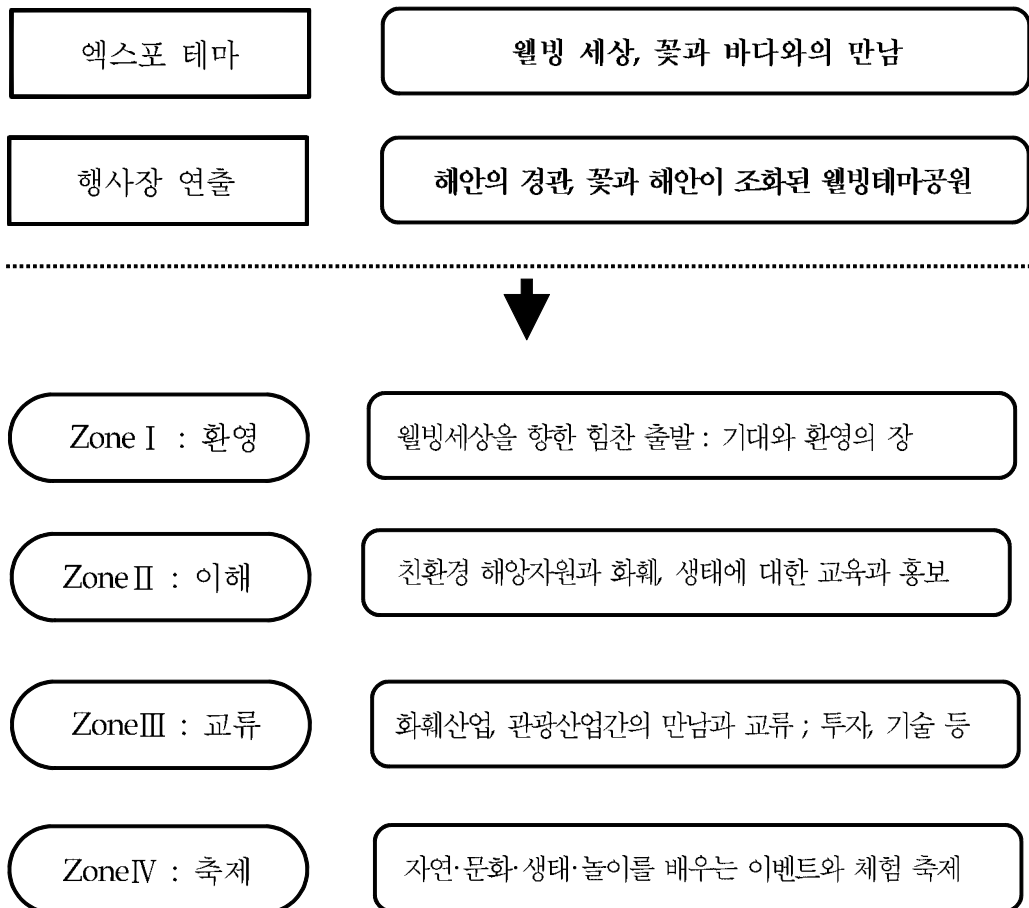
- 행사장 구성 기본방향

- 행사 후 지속적 활용을 고려한 행사장 조성 : 엑스포 개최 후 친환경

테마공원으로서 관련 행사의 연례개최를 고려하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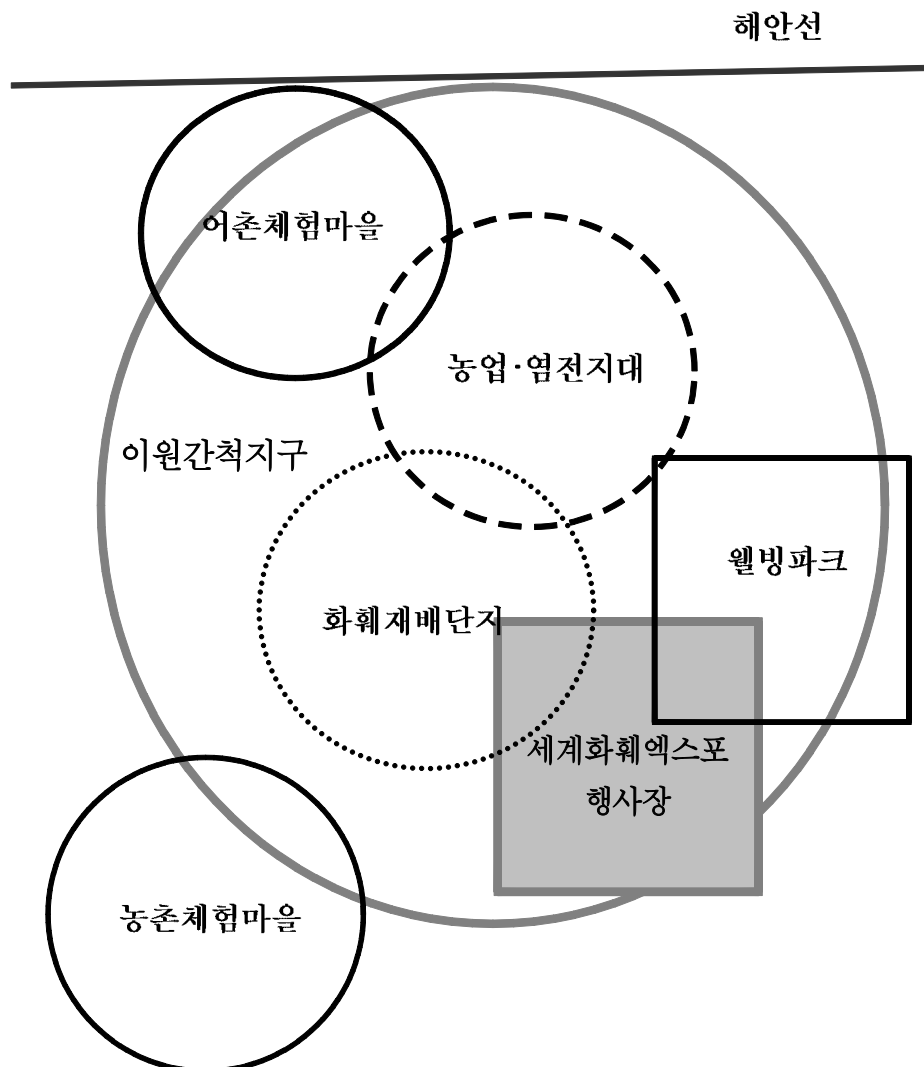
- 화훼와 관광이벤트를 소재로 한 교육과 체험, 재미가 있는 친환경 웰빙테마공원을 조성
- 기능성을 충족시킨 행사장 조성 : 이원간척지 전체 중 주행사공간을 집중시키고, 주변지역은 화훼와 체험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으로 운영

○ 행사장 Zoning 구상개념도



3) 행사장 구성방안

- 행사장 구성은 21C 태안 Green Well-being 파크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공간구성이 연계되도록 행사장 구성의 방안을 제시
- 행사장 구성 개념도



4) 추진방안

(1) 추진방향

- 우선적으로 이원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이벤트와 테마공원 조성의 방향 설정
- 엑스포를 통한 웰빙파크형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단기 및 장기계획 수립
- 단기적으로는 우선 태안의 대표축제로 태안플라워페스티벌을 지역이벤트로 계획하여 화훼농가 및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
- 장기적으로 충청남도과 전국적인 엑스포시기를 고려하여 개최연도를 결정하여 준비단계, 활성화단계, 개최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지역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화훼, 생태, 태안화력 등 산업개발과 병행하여 추진
- 엑스포행사장은 평상시에는 웰빙테마공원으로 활용하면서 연례적으로 엑스포를 개최하고, 평소에 행사장은 테마파크로 이용하여 관광객 유치

(2) 단계별 추진내용

- 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단계별로 추진

○ 사업추진일정

단기계획	2005년 ~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훼박람회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웰빙파크 조성계획도 병행하여 수립) • 세계화훼박람회의 구체적인 계획 및 목표수립 • 운영인력 육성과 화훼엑스포 개최에 대한 인식전환과 홍보의 실시 • 신규시설의 건설과 엑스포장 보완 및 마케팅 계획 수립
↓		
중기계획	2007년 ~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단계로 2007년 태안플라워페스티벌 개최 • 세계화훼박람회 실효성을 위한 준비점검과 행사장과 프로그램 보완 정비 • 엑스포 개최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관람객들 관심제고 • 행사장 준비 및 국내외 참여기관과 단체 섭외 완료
↓		
장기계획	2009년 ~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훼박람회 개최 및 평가 실시와 개선·보완 • 엑스포를 통한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달성에 대한 정기적인 의식교육 • 엑스포장을 지속활용한 웰빙테마파크의 조성 추진 • 실질적인 도농교류의 활성화와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

I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태안군은 주5일 근무제와 웰빙시대가 추구하는 풍부한 환경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청정한 해안 경관, 지역 특화의 화훼산업, 다양한 관광자원 등의 자원을 보유
- 입지적으로도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양호하며,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여 연간 1,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므로 이들을 위한 체류공간과 관광활동, 이벤트의 제공이 요구됨
- 특히, 기존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형성된 태안군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살리고, 지역의 대표축제로서 육성하기 위하여 화훼엑스포를 개최 필요
- 엑스포 행사장은 기존의 간척지를 이용하여 토지를 고부가가치로 활용하고, 태안화력, 간척지, 화훼, 테마관광지로 연계되는 친환경 웰빙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테마관광지로 활성화
- 태안군의 남쪽에 집중된 관광자원 개발을 북쪽으로 분산하여 태안지역의 균형발전 추구하고 태안화력을 연계하는 친환경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활력소 제공
- 이상의 태안군 환경여건을 고려할 때 태안군의 엑스포개최를 통한 웰빙테마공원의 조성은 태안관광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경제발전에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됨.

2. 정책제언

- 전국과 충남에는 각 연도마다 다양한 주제의 엑스포와 박람회 등 메가이벤트가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의 파급효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테마의 연계성이 미약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흡한 행사는 이를 취소하거나 행사를 축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행사를 검토해야함
- 따라서 태안군이 이원간척지구를 활용하여 엑스포를 개최하고, 이를 웰빙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한 포인트로 고려해야함
 - 엑스포 개최를 위한 태안군의 의지와 지역주민과 단체간의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단단히 결집되어 있는가
 - 충청남도과 태안군의 대내외적 여건을 볼 때 과연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여력과 2010년 이내에 시기적으로 가능 하겠는가
 - 엑스포 개최와 이를 연계한 웰빙테마공원 조성의 타당성은 있는가. 특히, 재무적 타당성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얼마나 있는가
 - 엑스포 개최와 웰빙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간척지 활용에 법과 제도적 규제의 한계는 어느 정도 인가
 - 꽃을 테마로 대규모 화훼단지를 조성할 경우 간척지의 염분으로 인한 꽃의 생육 장애를 극복하고 상업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 이상의 주요 사항을 검토한 후 엑스포 개최와 웰빙테마공원으로 조성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별로 로드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충청남도(2004), 『군문화엑스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충청남도(2003), 『벤처농업박람회 개최 기본계획 연구』 .

충청남도(2003), 『충남통계연보』 .

태안군(2003), 『태안통계연보』 .

태안군(2004), 『21C 태안 Green 웰빙파크조성 계획 내부자료』 .

태안군(2003), 『태안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

<http://www.2005ofex.org>.

제3주제

관광태안의 경관관리 방안

한 상 욱 · 조 봉 운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경관관리는 왜 필요한가?

1. 최근 선진국의 발전 동향

- OECD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사회·문화적 가치, 경제적 행태를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어메니티(Amenity)에 기반한 발전이 그 핵심임
- 어메니티의 구성요소는 크게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자연자원은 공기, 맑은 물과 같은 환경자원과 토양, 동물, 수자원과 같은 생태자원을 일컬음
 - 문화자원은 전통건조물, 주택, 신앙공간과 같은 역사자원과 농업경관, 하천경관, 산림경관과 같은 경관자원이 해당됨
 - 사회자원은 시설물이나 경제활동을 위한 자원들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위한 자원이 해당됨
- 어메니티의 구성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생태자원과 경관자원임. 경관자원의 경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법률」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음

2. 경관관련 법의 주요 내용

- 도시계획법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부문계획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등 하위계획과 각종개발사업의 지침적 성격을 갖도록 하였음. 또한 내용의 구성 면에서도 구체적인 사항까지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자연환경·녹지축·생태계·유적지 등이 양호한 경관에 대해서

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권장하고 있음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중 제30조에서는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이라 하여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하고 있음

- 명시항목 :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를 위한 시책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도입, 경관보전협약제도 도입, 경관형성 및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및 경관관리 제도화 등이 있음

- 법적인 차원에서 경관을 다루는 데에 대한 의미는

첫째, 삶의 질에 대한 요구로 함축적으로 발생한 어메니티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수단으로써 경관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임.

둘째, 기존의 경관계획은 도시의 난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난개발로 훼손되는 경관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양호한 경관에 대한 보전까지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임

3. 경관 · 경관계획 · 경관관리란 무엇인가?

1) 경관이란?

-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는 경치를 의미하며, 보다 전문적으로는 풍경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작용 및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종합적인 의미를 함축한 개념

2) 경관계획

- 경관계획에 대한 공인된 정의는 아직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는 계획 부문이 법제화 된 것이 최근의 일이며, 유사한 내용을 담은 계획들이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임
- 경관계획을 계획대상이 되는 보여지는 공간 그 자체의 물리적 요소와 그 공간을 평가하는 이미지 요소에 대해 총체적인 경관행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경관계획이라고 정의할 경우, 경관의 이미지를 설정하고 그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혹은 지구의 현재 경관이나 경관변화의 동향을 파악하여 그것에 근거한 경관형성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인간에게 있어서 의미있고 가치있는 경관을 보호(Preservation), 보존(Conservation), 활용, 창조(Improvement & Creation)하는 것

3) 경관관리계획

- 경관관리는 나라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일부 도시의 경우, 경관관리라는 용어 대신에 도시설계 또는 도시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것은 경관관리를 위한 물리적 측면 이외의 사회적 측면과 문화적 활동을 내포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경관관리계획은 제도적 차원, 행정적 차원 및 프로그램적 차원으로 크게 나뉨
- 제도적 차원에서는 기존 제도의 활용(예 : 경관지구의 체계적 지정 및 관리, 지구단위계획의 지정과 적용, 시범도시제도의 활용 등)과 제도의 신설(예 : 경관조례 제정 및 적용, 경관형성 심의제도의 제정 등)으로 구분됨

- 행정적 차원에서는 경관관련 통합·협의 체계의 구축, 경관형성 심의 제도의 활성화, 경관지구관련계획 추진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며, 각 경관유형별로 제시된 지침들을 단·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추진계획이 해당됨
-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도시경관 제어수단의 개발 및 시민참여유도와 의식개선체계의 구축 등이 주된 내용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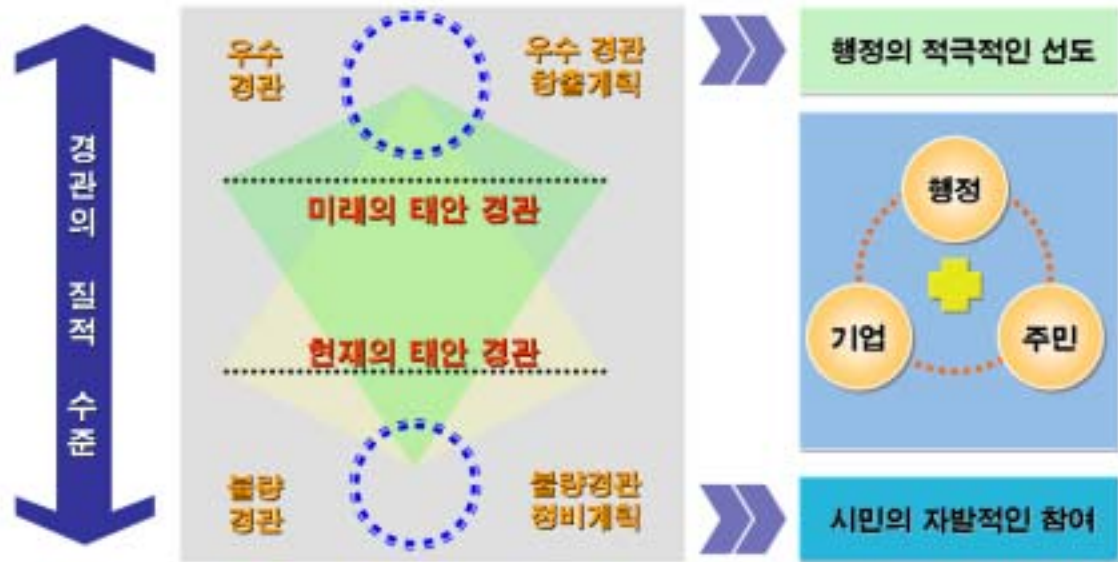
4. 경관관리는 왜 필요한가?

- 일반적으로 압축적 성장에 따른 경관의 무분별한 훼손에 대한 자각에서 지역의 경관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음
 - 기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시는 도시경관차원에서 도시경관을 특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시·군은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하였음
 - 공통적으로 경관계획 수립 이전에 문화재, 아파트, 하천경관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되었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였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음
- 고도의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요구도 기반시설에 관련된 실용적인 요구에서 질적·심미적·정서적인 것으로의 의식변화가 일게 됨
- 나아가서 우리들 세대가 과거로부터 아름다운 경관을 이어받아 계승한 것처럼, 다음 세대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남겨야 할 의무를 자각해야함과 동시에 주의깊고 신중한 환경가꾸기 차원의 경관관리, 다시 말해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경관관리가 요구됨
-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경관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고 있음. 하지만, 과거를 뒤돌아 볼 때, 압

축적 성장에 따른 천편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경관의 형성은 더 이상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으로써 그 한계를 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의 개성과 매력·정체성을 표현하고 이를 마케팅 할 수 있는 수단은 그 지역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자원을 가꾸고 어떻게 마케팅 하느냐가 관건이며, 이는 그 지역이 오랜 기간동안 축적된 문화·자연경관·역사경관, 그리고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II. 경관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경관관리의 목표



- 경관관리는 현재의 태안경관을 불량경관은 불량경관정비계획을 통해서, 우수경관은 우수경관 창출계획을 통해서 경관의 질적인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업·주민의 공통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특히 행정의 적극적인 선도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담보되어야만 함

2. 경관관리의 기본방침

- 주변 산악경관의 보호
 - 자연경관자원을 시각적 배경요소로 활용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친숙한 경관을 창출
 - 도시화로 인한 녹지공간의 잠식과 단절된 녹지축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녹지축의 보호 및 녹지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져야함

- 경관은 일차적으로 시각을 통해서 전달되는 바, 주요 조망점 및 산로의 우수한 조망을 보호하여야 함
- 시가지의 조화를 위한 하천 활용
 - 우리나라의 도시는 대부분이 하천에 근간을 두고서 발전하였는 바, 지역내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제공하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하천공간과 녹지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 그 일익을 담당토록 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연계되어야 함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선 보존을 실시토록 하며, 박제된 문화재로 남기보다는 지역민에게 친근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재 주변 경관도 함께 관리되어야 함
 - 이를 활용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역의 디자인 모티브로써 활용토록 하며, 무형의 문화예술 자원이 문화재 주변의 공간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관을 형성하여야 함
- 산악경관 보호를 위한 경관권역 설정
 - 우리나라의 도시는 대부분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권역구분이 필수적임
 - 권역별 자연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각 권역에 대한 조망 및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하천·도로경관보호를 위한 경관축의 설정
 - 하천은 주민을 위한 휴식·여가활동의 장소로 조성되어야 하며, 하천연접지역에 대한 관리 권역 설정이 뒤따라야 함
 - 주요 가로별로는 특성화 및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역사자원, 주진입부, 결절부에 대한 경관 거점 설정
 - 문화재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일체화된 경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지역의 상징성 부여를 위해서 지역의 주진입부는 관문으로서의 경관 거점을 설정하고 경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주민의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시설 및 시각적 결절부에 대해서도 역시 경관거점을 설정하고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경관관리 권역에 대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 경관관리를 위해서 권역을 설정하더라도 해당 권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야 함
 - 일반 시가지 권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설정을 통해서 경관관리를 체계화하고, 산악경관 연결권역, 하천경관관리지역·조망가로에 대해서도 역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야 함
- 디자인 가이드라인 실행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협력
 -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지역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으로써, 관리 및 수유주체에 따라 공공 및 민간으로 나눌 수 있음
 - 공공영역에 해당되는 각종 시설 및 공공 건축물은 행정이 주체가 되어 선도적으로 실행을 하여야 하며, 민간영역 중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영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3.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중요성 및 수립 대상

- 경관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스카이라인, 건조물 및 외부공간 디테일에 대한 관리가 주요 핵심이 됨.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조물에 대한 경관관리 및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도시설계적 차원에서 다

루고 있음

-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실행되는 바, 주 대상은 건축물·가로시설물·옥외광고물과 환경색채로 구분이 가능함
- 분야별 적용가능한 대상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대상

구분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대상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시가지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상업용건축구물, 공업용 건축물 ○ 특별관리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경관연접권역, 하천경관관리지역, 조망가로
가로시설물	○ 불라드, 휴지통, 벤치, 신호등, 광고판, 버스정류장 등
옥외광고물	○ 간판류(전면간판, 오닝간판, 채널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등), 현수막, 애드벌룬, 선전광고물간판 등
환경색채	○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 현재 선진국에서는 건축물을 사유재산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 보고, 직·간접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행해지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경관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실현 수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개성있는 경관창출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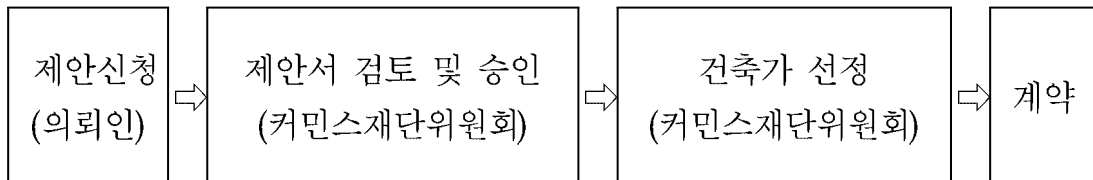
III. 선진정책 사례

1. 미국 콜럼버스시 건축 프로그램(Architecture Program)

○ 도시여건 : 인디애나주 인구 약 4만명의 소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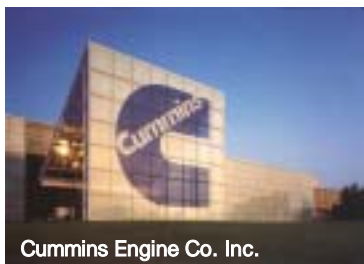
○ 도입배경 및 운영방식

- 양호한 교육환경, 일하기 좋은 곳, 살기 좋은 커뮤니티 공간창출
- '50년대부터 커민스 엔진그룹의 이익금을 출연 받아 우수 건축물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커민스 재단에서 건축설계비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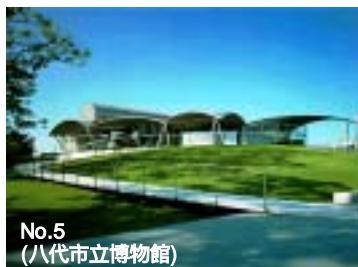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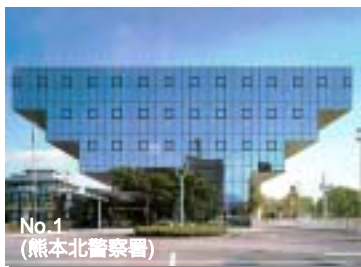
○ 시행성과 및 시사점

- '03년까지 우수건축물 68점의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관광자원화
- 「대초원의 아테네」라는 슬로건 하에 집중 홍보하고, 건축관광(Architectural Tour)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연간 5만명의 관광객 유치
- 공공건축물의 질적 향상으로 지역이미지 향상 및 경쟁력 강화



2.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계획(Kumamoto Art Polis Project)

- 「풍요로움이 가득 찬 생활창조 구마모토」를 주제로 하여
 - 대내적으로 주민들의 주택과 주변 환경에 대한 환경디자인·도시설계 및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제고
 - 대외적으로 구마모토를 세계적 건축문화 및 생활문화의 도시로 부각
- 건축 및 도시(환경) 디자인에 의한 지역활성화 도모
 - 縣 전체의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도시+산촌」을 포함하는 개념, 환경적인 감각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중시
- 문화전략으로서 도시·건축디자인 추구
 - 모든 계획과정에서 이용자와 지역주민에게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의 가치를 이해시키는 노력 병행
 - 그 효과가 점→선→면으로 확대되는 파문효과(Rippling effect)를 추구하되 강행규정을 두지 않음
-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뛰어난 건축물을 창조하는 프로젝트 사업추진 시스템을 구축·운용
 - 프로젝트사업 : Commissioner에 의한 참가프로젝트 설계자 추천
 - 현창사업 : 우수건축물을 표창
 - 기획·홍보·인재육성 사업 : 강연회·심포지엄·전람회를 개최



○ 시행성과 및 시사점

- 경관계획과 KAP의 병행 추진 및 일관성있는 추진으로 파문효과(Rippling Effect) 추구
- 시민과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전략 추구
- 단순한 미관향상에서 벗어나 외적인 장소 마케팅(판촉) 효과
- 참가프로젝트의 높은 작품수준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파급효과

3. 안양시 Art City 21 Program

○ 도입배경 및 운영방식

- 경관형성기본계획 등 다수의 용역성과들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 실질적·종합적인 「액션프로그램」을 마련
- 「아름답고 살기 좋은 예술도시 안양」 건설을 목표로 추진전략 마련, 시 전체를 특성별로 4개의 권역으로 구분,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설정,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02. 10. 1부터 시행
- 우수건조물 시상제, 우수건축가양성프로그램 등 관련사업도 병행시행
- 법적근거가 없어 對시민홍보 및 내부예규에 의존 시행

○ 시행성과

- 2004. 3 현재 1,813건 자문시행(공공시설 128, 건축물 1,618, 옥외광고물 67)
- 2003년도 안양시 건축문화상 Festival 개최
- 시행초기 시민과 의회위원들의 심한 반대로 많은 어려움과 시행상의 착오가 있었으나 안양시의 적극적인 홍보로 최근 정착화 단계로 진입

IV. 태안군의 경관관리 방향

1. 태안군 경관관리의 문제점

태안군 전체 경관에 대한 마스터플랜 부재

- 안면도 꽃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외에 펜션과 같은 점적인 개발로 인하여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난개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이 선결조건임
-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경우, 경관계획을 통해 도시의 전반적인 통일성 유지 및 일반 건조물의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기에, 아트폴리스에 의한 독특한 형태의 건축물 입지가 가능하였음
- 이를 통해 1988년 이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추진으로, 점·선·면으로 확대되는 파문효과를 추구하였음

질적 성숙을 위한 경관관리의 제도적 장치 미비

- 태안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자연환경을 비롯한 어메니티 자원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의 질적인 성숙이 담보되어야 함. 따라서, 태안군의 각종 지역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관 관련분야의 자문단 및 계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군정 자문단을 운용하는 한편, 경관과 관련된 건축·조경·도시·도시설계·환경·디자인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또한, 개별사업에 의한 결과들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를 항상 고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설계방법을 도입·실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2. 개선과제

경관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경관조례의 제정을 통한 경관관리

-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관조례를 제정
- 경관지구의 세분화 및 그에 맞는 관리조항(경관지구지정, 경관심의제도,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을 통하여 경관관리 도모
- 토지이용·자연환경 등을 고려, 경관관리를 위한 面의 권역을 설정
- 지역별·경관권역별·축별·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작성

경관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통한 경관관리

- 경관지구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관리
-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일정 수준의 통일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마련

이미지 개선을 위한 건축물 디자인 심사 강화

- 군 건축위원회 위원중 건축디자인·조경분야 전문가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디자인 전문심사단」을 구성·운영

- 「디자인 전문심사단」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위원회 상정 or 소위원회 구성시 「디자인 전문심사단」 포함 의무화
-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확산을 위한 건축사 동참 유도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사 강화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에 대한 디자인 심사 강화
 - 기술심의 위원중 건축디자인, 조경분야 전문가로 「디자인자문단」 구성
-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자문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 강화
 - 건설공사의 내부지침인 「지방도·하천사업 설계기준」에 시설물의 디자인, 조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명시
 - 세부기준 작성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설계방법을 구체화

경관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시상 및 홍보 강화

- 경관 개선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종합시상제도 운영
 - 건축부문, 공공시설부문, 이미지개선 부문 등으로 분류, 우수사례 표창
- 경관관리는 주민과 의회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성공 가능하므로 실행 과정의 마찰 최소화를 위한 이해설득 및 홍보 강화
 -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시 공청회, 의회, 건축사·전문가 세미나 개최
 - 여론 주도층(리·통장)을 대상으로 한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
 - 공공시설물 건축에 대한 주민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창구 개설

3. 경관행정 추진과제

경관관련 행정 협의체계 구축

- 통합협의체계 구축(공공차원) : 경관기본계획의 실천 및 경관조례 제정을 위해서 경관전담부서의 설치
- 전문운영체계 구축(공공+민간) : 경관심의기구, 경관자문기구, 계획추진기구, 디자인 자문기구 조성 추진
- 경관코디네이터제도 운영(공공+민간) : 주민의 지역 내 우수경관형성을 위해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조경 등의 전문가 자문 제공

경관지침 관련 정책 개발

- 다양한 유형의 인센티브 개발 : 경관조례에 규정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구별 단위사업에 대한 단위 인센티브 부여
- 경관지침에 대한 활용과 적용(경관심의) :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재정 확보·기획아이디어 구상
- 경관협정제도 도입 : 경관관리 실천을 위해 태안군의 정책사업으로 발전(예 : 가로녹화협정, 화분달기 협정, 생울타리협정, 근린경관형성협정, 옥외광고물협정)
- 경관시범사업의 운영 : 가로경관조성사업, 가로변 공지정비사업, 보행로 정비사업, 야간경관 창출사업

제4주제

태안해양웰빙시티 발전방향

박 철 희 · 임 명 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구원)

1. 웰빙바람... 더 건강하게 더 여유롭게

1.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웰빙

-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에 자기자신에게 투자하는 경향이 급속히 증대
 - 현대인에게 과거에는 부동산, 금융상품 등이 투자대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자기자신'에게 투자하는 경향
 - 과거의 젊은이들은 돈을 모아 저축통장을 만드는 것을 보람으로 여겼다면, 현대의 젊은이들은 헬스클럽, 요가강좌에 등록



-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여가시간의 증대로 자기체험, 자아개발 등의 활동이 확대
 -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여가시간의 증대는 레저, 취미활동, 휴식·휴양을 통해 인생과 자연을 누리려는 활동으로 나타남
 -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함

2. “몸에 좋으니...” 내수부진 속에도 호황 누려

- 친환경제품 비중 매년 급증
 - 대표적인 내수지표 중 하나인 도·소매 판매가 2003년 3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웰빙상품에 대한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대한상의보고서)

-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로 인해 친환경적인 웰빙(Well-being)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기업들도 대부분의 상품에 환경친화성을 강조한 웰빙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음

3. 웰빙, 직업도 산업도 유망직종, 유망산업

- 웰빙산업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창출로 인한 신시장 형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종을 생성하며 일자리를 창출
- 웰빙과 관련된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실버 시터(silver sitter), 아로마 테라피스트, 여행 패키지 기획자, 라이프 코치(life coach)등이 유망직업으로 떠오름
 -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 가장 인기 있는 직종으로서 현재 활동하는 사람만 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인쿠르트)
 - 실버 시터 : 혼자 사는 노인들의 말벗이 되거나 도우미 구실을 하는 사람
 - 여행 패키지 기획자 : 여행에 필요한 모든 일정을 관리해주는 직업
 - 라이프 코치 : 직장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법, 친구·가족과의 관계 개선 등 일상의 일 등에 관한 카운셀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전 세계적으로 2만 여명에 달함(위싱턴 포스트)
 -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 : 병원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의 환자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지도해주는 직업으로서 병원 직원에 대한 서비스 교육과 차별화된 서비스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대외적으로는 병원 이미지 개선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개인영양사 : 비만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신종 직업

4.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웰빙”

- 주5일 근무제의 정착, 소득수준의 지속적 향상, 삶의 질 제고 등으로 웰빙(well-being), 웰니스(wellness)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여가공간 및 농·산·어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 (국토연구원, 제4차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안), 2004.4)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특화방안과 친건강·친환경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방안 요구

II. 웰빙의 개념과 도입사례

1. 웰빙(Well-being)과 웰니스(Wellness)

1) 웰빙(Well-being)이란?

- ‘웰빙’은 건강한(well, 안락한 · 만족한) 인생(being)을 살자는 의미
 - 웰빙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 안녕, 복지 등으로서 ‘삶의 질’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영어의 ‘Well-being’은 그 근원이 60~70년대 미국 히피 이즘과 연관

- 원래 미국에서 웰빙은 반전운동과 민권운동 정신을 계승한 중산층 이상 시민들이 고도화된 첨단문명에 대항해 자연주의, 뉴에이지 문화 등을 받아들이면서 파생된 삶의 방식으로 보고 있음
- 웰빙의 대표적인 문화적 코드인 요가나 명상이 60년대와 70년대 초 미국의 히피들에 의해 크게 유행했고 80년대 여피족(yuppie)¹⁾과 90년대 보보스족²⁾의 라이프스타일에도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

- 국내에 웰빙 개념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02년 말부터
- 여기에서 파생한 신조어 ‘웰빙족’은 물질적 가치나 명예를 얻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보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는 균형있는 삶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 사람들을 가리킴

1) 여피족 : 여피란 젊은(young), 도시화(urban), 전문직(professional)의 세 머리글자를 딴 ‘YUP’에서 나온 말이다. 고등교육을 받고, 도시 근교에 살며, 전문직에 종사하여 연3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젊은이들을 말함

2) 보보스족 :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의 합성어로 부르조아의 경제적인 실리와 보헤미안의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

2) 웰니스(Wellness)란?

- 외국에선 웰빙과 같은 개념으로 웰니스란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
- 웰니스(wellness)는 신체적인 건강에 국한되는 협의적 개념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의 건강
 - WHO(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웰니스의 3요소인 운동, 영양, 휴양을 통합하여 추구해 나감
- 웰니스는 최적의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돕는다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5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짐
 - 신체적(physical), 정서적(emotional), 사회적(social), 정신적(spiritual), 지적(intellectual) 영역들이 최적의 건강성을 유지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에 중요성을 둠

분 야	세부 분야
신체적 웰니스	· 체력관리, 영양관리, 흡연 및 음주관리, 약물관리
정서적 웰니스	· 상황대처능력, 스트레스 관리, 관용
사회적 웰니스	· 사회봉사, 타인존중, 대인관계
정신적 웰니스	· 자아 성취력, 신념과 가치, 보람과 사랑
지적 웰니스	· 의료지식의 관심도, 자아개발과 지식습득, 교육의 가치

2. 선진국의 웰빙도입 사례 - 미국, 일본, 독일

1) 미국 - 민간: 건강관리, 중앙: 건강보호 및 질병예방

- 초기 건강관리를 위한 원리나 철학적인 내용에서, 최근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며, 치료법으로서 자연치료법 또는 대체의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건강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서 티벳불교의 명상프로그램, 또는 태극권, 기공프로그램 등이 인기
 - 건강관련단체에서는 5S(salt, sugar, snack, smoking, sitting) 추방운동을 전개
- 미국에서는 건강관리(웰니스)를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프로그램을 의미하는 표어로 정착
 - 1980년 미국 건강보건국 산하의 공중보건부에서는 웰니스의 하위영역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

분 야	세부 분야
건강보호	· 치아건강 - 충치예방을 위해 음용수에 불소 함유, 안전벨트의 의무화, 금지약물에 대한 노출제한 등을 통한 사고 예방
예방차원의 건강	· 고혈압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예방주사,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건강증진	· 체력과 운동, 영양, 스트레스와 폭력적 행동의 조절, 흡연과 건강, 알콜과 약물의 억제

2) 일본 - 중앙: 국민건강만들기 운동, 지방: 건강한 지역만들기

○ 중앙정부계획 『건강일본21』

- 2000년도에 일본 후생성은 2010년도를 목표로 “건강일본 21”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건강일본 21”의 특징은 일차적으로 질병예방에 중점을 두고 목표제 시와 평가를 하여 광역적 차원에서 사회전체의 건강만들기를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만들기 계획을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세워 국가, 도도부현, 시군정이 중층적으로 건강만들기를 시행하는 것이 특징

○ 반면, 지방정부계획에서는 건강한 지역만들기 추진

- 주민참가를 기반으로 지역의 독자성, 독창성이 반영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나 연대감 육성, 누구나 부담없이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건강산업화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진흥 활성화 모색, 즉 지역의 의료 건강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설비를 자연·환경·문화 등과 연계하여 산업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관건
- 또한 안심, 안전, 환경을 테마로 한 웰빙상품개발과 상품추천 인정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웰빙관광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

3) 독일 - 민간: 웰니스 관광

○ 관광으로서 웰니스호텔과 웰니스휴가의 급성장

- 독일의 모든 경제분야가 정체 또는 침체상태에 있는 반면, 웰니스호텔, 웰니스(건강관리) 휴가는 급성장하고 있으며,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음

- 웰니스 호텔은 2002년도에 939개소에서 2003년도에는 1,106개소로 18% 급증
- 웰니스 휴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호텔을 4가지 유형(건강관리, 요양, 건강호텔, 미용원)으로 평가한 후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제공
- 4가지 유형별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유 형	세부 정의 내용
건강관리 (Wellness)	· “의사없이” 일반적으로 차분한 느낌을 주는 환경을 보증하며, 고객으로 하여금 긴장이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곳
요양 (Kur)	· 3주간 체재하고 전문적인 진단 및 의사가 이끄는 치료과정이 있는 곳
건강호텔 (Gesundheitshotel)	· 의학적 진찰에서부터 체질개선을 위한 식이요법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후유증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곳
미용원 (Beauty Farm)	·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입지하여 주로 여성들이 얼마간 머물면서 치료에 의해 자연스런 아름다움을 유지, 증진, 회복하는 곳, 일종의 병원이며 요양소

- 치료온천과 요양지를 중심으로 적합한 치료기반 및 요양을 제공
 - 2000년 현재 약300여개의 최고급 치료온천이 있고 요양지에 1,600만 명의 요양객이 찾고 있으며, 연간 숙박객수는 1억4백만명에 이릅니다
 - 새로운 치료기반의 연구와 보급을 통하여 건강증진과 관련산업을 촉진하고 있음. 대표적으로는 자연치료법인 펠로이드 치료(Peloidetheraphie), 해수치료(Thalassotherapie), 태양치료(Heliotheraphie), 기후치료, 크나이프식 치료 등이 있음

4) 시사점

- 웰빙, 웰니스의 개념을 각 국가마다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업내용과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은 개인차원에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도모, 일본은 건강한 지역환경 조성 및 관련산업의 증진, 독일에서는 자연치유법에 의한 요양,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태안군이 서해안에 입지한 점을 감안할 때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수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구분	미 국	일 본	독 일
목표	건강관리 질병예방	건강증진 건강한 지역만들기	건강관리 치료
주체	민간 건강보건국	후생성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상, 요가 · 자연치료법 및 대체의학 · 건강보호, 예방의학, 건강증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예방 · 건강한 지역만들기 · 환경정비형 · 상품개발과 인증제도 도입 · 보양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 호텔 · 치료온천과 요양지 · 치료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차원에서 출발하여 건강관리에 중점을 둠 · 정부(건강보건국)에서는 질병예방차원에서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의 건강과 함께 관련시설입지를 통한 지역산업활성화 추진 · 관련 웰빙 상품의 적극적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과 치료에 중점을 둠 · 특히, 건강관리를 위한 자연치료법을 개발 보급

3. 국내 웰빙산업 현황과 전망

1) 국내 웰빙산업 현황

(1) 웰빙 분야

- 웰빙의 분야는 크게 5가지(신체·건강, 식품, 여가·관광, 생활용품, 생활환경)로 구분할 수 있음
 - 신체·건강 : 건강기구, 치료요법 등
 - 식품 : 건강기능성 식품, 유기농 식품
 - 여가·관광 : 취미, 레저, 요양, 휴양, 관광 등
 - 생활용품 : 생활가전, 패션/미용, 자동차 등
 - 생활환경 : 주거내 공간, 정주환경 등

구 분	사업 내용
건강기구	· 건강용품, 건강 의료기구,
치료요법	· 필라테스, 향기요법(아로마 허브)
식품	· 건강보조식품, 유기농 식품, 친환경식품, 생식, 슬로푸드형 전통음식, 항암·노화억제 식품
취미	· 명상, 요가, 스포츠(태극권, 기공체조 등)
관광레저	· 여행, 요양, 휴양
생활가전	· 공기청정기, 정수기, 나노실버 냉장고
패션/미용	· 천연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목욕용품, 스포츠 의류, 기능성 속옷
주거/환경	· 친환경적 주거, 아파트, 외부환경

(2) 시장 동향

① 민간기업부문

○ ‘웰빙’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는 제품(유기농건강식품, 천연섬유 및 기능성 의류, 아로마 제품 등)에서 관련상품으로 까지 분야가 넓어지고 있음

- 식품, 건강, 레저, 관광산업 쪽에 치우쳤던 웰빙상품은 생활가전(TV, 공기청정기 등), 자동차 등을 거쳐 주거공간으로까지 급속히 확대

구 분	웰빙상품 시장 동향
식료품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산음료 판매량은 7% 감소한 반면, 건강음료는 25% 증가 (03) 옥션의 건강상품 판매액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배 이상 급증 (03) 국내 건강기능성 식품시장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3조4천 억원 이상 성장 (03)
건강관련 기획상품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중소기업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건강관련 기획상품시장에 대기업이 속속 뛰어들고 있음. 롯데제과가 건식 OEM업체인 일양 P&F를 인수하면서 건강 보조식품 시장 진입 CJ는 ‘CJ뉴트라’라는 브랜드로 생식 및 종합건강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망을 형성
가전제품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사치품으로 인식되던 공기청정기는 지난해만 60만대가 판매되어 전년대비 3배 이상의 판매기록을 세우고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음. 비데, 살균성과 향균성을 가진 나노실버 냉장고 등이 지난해에 이어 인기
자동차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 3사는 실내공간이 넓고 운전이 편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이 함께 주말여행을 하기에 적합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에 총력
주거환경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건설, 현대산업개발, 우림건설 등 선두권 건설업체들은 환풍기능, 생태공간, 친환경 마감재 등을 사용해 차별화한 주택을 공급

② 자치단체부문

구 분	지방자치단체 웰빙관련 개발 사례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시 - '여름 웰빙 페어 2004' 개최 ○ 강릉시 - 웰빙투어 프로그램 개발 ○ 횡성군 - 웰빙과 한우를 접목시킨 축제 개최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 정비사업을 기반시설위주에서 웰빙환경조성에 역점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가, 참선, 태극권, 선무도 등의 명상수련과 기공, 한의학, 심리요법 등의 기공한방요양, 명상음악, 명상춤, 전통무예 등의 공연과 강연, 세미나, 수련실 등을 갖춘 「명상문화 체험센터」 개발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안군 - 각 읍면별로 웰빙관광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안읍의 과수원 체험, 돌모산 축제 - 주산면의 오리낭군 우렁각시 시집장가 가는날 - 동진면의 복분자 농촌체험 프로그램 - 행안면의 구수한 추생 미밥 맛보러 오세요 - 계화면의 조개잡이와 철새조망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자연환경과 농산물을 활용한 웰빙관광상품 개발 추진 - 보성 녹차 개발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산읍 - 소도읍과 연계하여 웰빙타운 조성

2) 전망

○ 제도·정책적 변화, 경제·산업적 변화, 인구 통계적 변화 등 환경적 변화에 따른 웰빙 산업 및 소비시장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환경/자연주의, 소비자보호정책, 주 5일 근무제 등 제도·정책적 환경 변화가 웰빙 소비를 더욱 촉진

- 환경/자연주의(EHS: Environment, Health, Safety), 소비자보호정책에 대한 관심이 먼저 시작된 선진국일수록 웰빙 개념이 선도적으로 도입
- 90년대 건강용품에 대한 과학적 효능, 안정성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 법령 시행 이후 선진국에서는 건강 관련 제품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경제 성장 및 소득 수준이 향상 중인 아시아, 남미 시장으로 관심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
- 대체의학과 자가치료에 효능이 있는 식품과 천연물에 대한 수요(needs)가 커지고 광우병, 조류독감 등 세계적인 질병 파동, 일련의 위생 관련 사고로 인해 건강과 위생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짐
- 주 5일 근무제의 본격화 이후 나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단란한 생활이 실천가능해지면서 웰빙 여건이 보다 성숙됨

둘째, 웰빙 소비 확산은 소비문화 선진화의 과정으로 국내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될 전망

- 웰빙문화의 대두와 확산을 소득의 증대와 글로벌화, 사회 의식의 진화에 따른 소비의식과 문화의 선진화 과정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
- 웰빙 소비 열풍이 여러 언론매체에서 이슈가 된 직후 일상생활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주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하였으므로 고급소비의 또 다른 일면이라는 비판도 제기

- 반면,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건강 관련 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희소성이나 과시성을 추구하기 보다 개인과 가족의 건강, 자연환경,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가치지향적인 합리적 소비라는 해석도 가능
- 경기 호·불황에 무관하게 건강지향적,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
- 미국의 경우도 검약적 소비(Downsizing)를 지향하던 시기에 건강 및 환경 관련 상품의 판매는 반대로 고성장세를 기록. 특히 80년대 이후,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적 소비문화가 확산되어 2003년 유기농 식품 및 식이요법 시장은 98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
- 일본 또한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90년대까지의 방만했던 소비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성이 시작. 따라서 유행에 대해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구매패턴이 품질과 가격 위주의 보수적 경향으로 회귀하여 필요 이상의 기능을 제거하고 사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편의를 지원하는 웰빙 상품에 관심이 주목

셋째, 개인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실속형 웰빙소비와 소비구조 조성이 빠르게 진전될 전망

- 스마트 소비자들은 개인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검약 항목과 투자 항목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소비
- 자기만족을 위한 특정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과 비용의 기꺼이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
- 젊은 세대에 대한 심층분석보고서(제일기획, 2003)에 따르면 40% 이상의 네티즌이 개인적 관심사에 따라 2개 이상의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있고, 의류와 외식이 거의 주된 지출항목인 것으로 조사

III. 「태안해양웰빙시티 발전구상 및 전략」 검토

- 태안해양웰빙시티는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태안군의 발전구상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로서 발전구상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태안해양웰빙시티의 비전은 지역 감동의 회생, 새로운 감동의 창조,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New Emotions of Nature and Culture”를 제시하고 있음

1. 비전과 목표

<p style="text-align: center;">태안해양웰빙시티 New Emotions of Nature and Culture</p>
--

2. 개발방향과 전략

1) 개발방향

-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방향은 Tourism, Wellbeing Life, Culture 부문으로 나누어 전개
 - Wellbeing Tourism : 웰빙관광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실천방안과 사업화계획 제시
 - Wellbeing Life : 웰빙도시 건설을 위한 사회적 실천방안으로서 미감 활력도시 사회화계획을 제시

2) 추진전략

- 태안해양웰빙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기존문제의 해결, 웰빙관광 추진, ZERO화 전략, 웰빙생활화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략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존문제의 해결 : 지역적·계절적 집중 해소, 실익 창출구조로 전환, 지역산업/자원 활용구조로 전환
 - 웰빙관광 추진 : 꽃·조미채소를 활용한 건강휴양관광, 갯벌·송림을 활용한 자연체험관광,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기행관광
 - ZERO화 전략 : 환경부하의 Zero화, 잘못된 생활문화의 Zero화, 잘못된 행정문화의 Zero화
 - 웰빙생활화 전략 : 지역문화 회생, 여유로운 삶의 문화 창출, 안심문화의 창출

3. 실천사업

- 실천사업은 웰빙관광과 웰빙생활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1) 웰빙관광을 위한 사업

(1) 태안중심의 회생 - 웰빙관광의 Gate Way로서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

- 주요사업 : TWC정보관 건립, 태안학사(泰安學舍), 테마거리(동학/관청/백화로)조성, 태안30년 숲 조성, 백화산 문화회랑 정비 등 5개 사업을 제안

(2) 농특산물을 이용한 WT창출

- 주요사업 : 화훼특화단지, 태안MFG(Marin Flower Garden), 건강웰빙타운, 농특산물 특화단지, 지역관광종합센터 조성 등 5개 사업을 제안

(3) 해안어촌관광의 웰빙적 테마화

- 주요사업 : 기존의 해안에 테마를 부여한 어촌관광상품개발
 - 해안사업지구, 농어촌체험지구, 해안생태지구, 해안경관지구

2) 웰빙생활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

- 웰빙생활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정체성 확립, 지역커뮤니티 구축, 지역사랑운동, 지역환경운동, 지역품격운동, 시민사회교육, 행정기반체계전개를 제안하고 있음

(1) 지역정체성 확립

- 주요사업 : 「태안민지」 편찬, 「나의태안」 포럼, 「태안No.1」 사시, 옛 유적·옛길 발굴/복원사업, 자연 및 문화유적 탐사 등

(2) 지역커뮤니티 구축

- 주요사업 : 태안포럼 운영, 지역반상회/이동행정실 운영, 군민과 함께하는 백화산 산행, 지역단위/주민주체의 축제활성화, 태안군민의 숲 조성

(3) 지역사랑운동

- 주요사업 : 함량미달 농산물 유통 Zero화 운동, 지역건강식품/전통요리 개발·보급, 지산지소 운동, 리사이클 마켓운영, 1차 산업 보전·육성 운동

(4) 지역환경운동

- 주요사업 : 생활오폐수 무단방출 Zero화 운동, 환경과수꾼 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천연염료 및 천연소재 사용운동, 자연/문화자원 보전운동

4. 구상 및 전략 검토

1) 태안해양웰빙시티 구상의 의의

- 태안해양웰빙시티 발전 구상 및 전략은 태안군과 군민에게 Wellbeing의 역사와 개념, 선진 웰빙도시 사례, 국내웰빙 추진실태를 소개
- 이를 바탕으로 해양웰빙시티 구현을 위한 개발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여 태안군과 주민들에게 웰빙시대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웰빙관광 및 생활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제안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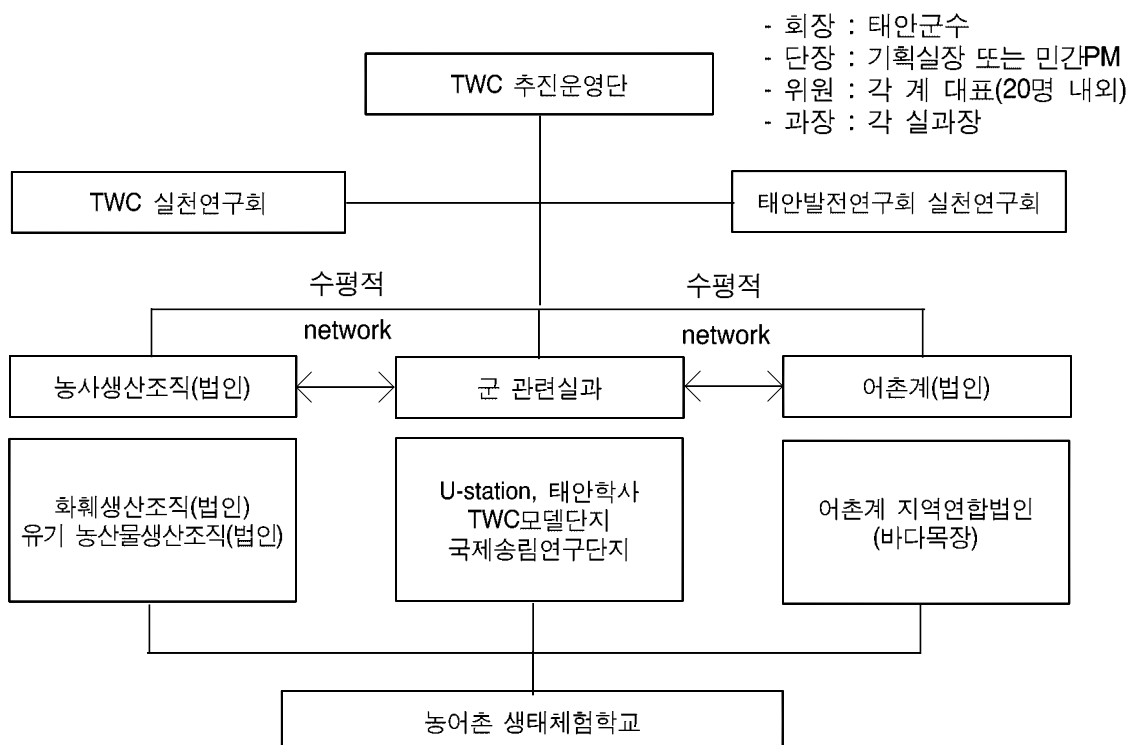
2) 구상실현을 위한 과제

- 태안해양웰빙시티는 사업구상 수준의 연구로 개념 이해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
- 그 과제로서 첫째, 웰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조직, 재원의 문제, 둘째, 웰빙사업의 수요자로 웰빙소비자 즉 외부관광객, 방문객 등 인가 아니면 태안군 주민인가, 셋째, 시행사업들이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는가의 검토가 필요
- 이러한 측면에서, 태안해양웰빙시티 완성은 더욱 사업의 구체성을 요구하고 있음
 - 웰빙에 있어 건강음식은 산업에서 가장 상층부에 있으며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 전개가 필요
 - 또한 소비자간, 소비자와 태안웰빙시티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웰빙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

IV. 태안군의 실천방안

1. 웰빙시티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태안군 웰빙상품을 기획, 상품개발, 홍보, 유통경로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구축
 - 대기업에서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읽고 신제품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상품을 기획, 개발하는 브랜드매니저(BM), 프로덕트매니저(PM) 등을 두고 있음
- 사업주체는 태안군으로 하되, 태안웰빙시티(TWC) 추진운영단의 주도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주 : 「태안해양웰빙시티 발전구상 및 전략」의 p.105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2. 실질가치(real value)를 주는 웰빙상품의 발굴과 개발

- 웰빙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으면 주목받지 못할 상품들이 웰빙상품으로 개발되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
 - 비타민, 아미노산, 유기농 건강식품, 천연섬유 및 기능성 의류, 아로마 제품 등의 주목과 함께 오지, 농촌, 산골마을을 웰빙공간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지역 활력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
- 태안군은 건강생활부문(자연식품, 유기농식품, 영양보조제, 건강식품 및 음료, 다이어트 보조식품, 개인자연 치료 등), 생태생활산업부문(환경투어 및 관광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1) 유기농 식품의 재배와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

- 웰빙형 인간들이 선호하는 음식류를 대상으로 한 유기농 식품 재배 추진
 - 웰빙형 인간들이 선호하는 음식류 중 대표적인 음식 10가지는 연어(고등어), 달걀, 블루베리, 수박, 사과, 아보카도(참깨, 들깨), 카레가루, 고추, 곡물시리얼, 땅콩(콩, 두부) 등
 -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10대 건강식품으로 마늘, 토마토, 시금치, 적포도주, 견과류, 브로콜리, 귀리, 연어, 녹차, 블루베리를 제시
 - 유기농 식품 제조에 대한 기준, 교육, 재배, 보급을 추진하며,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태안만의 환경지수 등 인증제도를 도입

유기농 인증에 대한 해외사례

			
유기 JAS 마크	유기 USDA마크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마크	QAIMARK
농수성의 지도에 따라 인가를 받은 유기인증기관의 엄격한 검사와 기준에 합격한 상품만이 「유기JAS 마크」 표시가 가능	미 농무부는 2000년에 직접 유기인증법을 만들어서 시행	IFOAM에 가입한 110여 개국의 나라가 만든 유기농산물의 기준(축산,경종,원예,가공에 관련되는 생산기준제시)	원료의 토양, 재배, 수확 후 제품가공시설을 관리하며, 95% 이상의 원료가 유기농이면 제품에 "ORGANIC" 이라고 표시

사례 : 유기농 상품을 판매하는 ORGA의 상품표지

	유기농산물 3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유기가공품 유기재배 생산조건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
	전환기유기농산물 1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Dairy Free 우유, 버터가 함유되어 있지 않음 단, 꿀은 함유되어 있을 수 있음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 는 권장사용량의 1/3 이내로 사용		Sugar Free 설탕이 첨가되어 있지 않음. 단 원료 자 체가 함유하고 있는 당은 제외됨
	저농약농산물 화학비료 권장량의 1/20내 사용, 잔류농 약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0이하인 것		Gluten Free 글루텐 내성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품 밀가루,보리,귀리,호밀 등이 함유되지 않음

- 건강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먹거리 서비스 제공
 - 건강을 주제로 한 음식은 웰빙산업에서 가장 상층부에 놓여 있는 사
업임을 인식
 - 태안군의 특산물을 영양과 기능성을 중심으로 Well-being 테마를 강
화하는 상품으로 개발
- 특히, 건강식 먹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계절별 음식축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안면도의 대하축제는 활성화되어 있으나, 다른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는 부재
 - Well-being 음식 축제의 개발은 지역의 거점식당가 또는 포구를 중심
으로 차별화된 방식을 채택
 - 개발가능한 축제로서 봄 바지락·쭈꾸미 축제, 여름 우럭·밀굴낙지
탕, 가을 대하·전어, 겨울 굴과 개불축제 등이 가능
- 또한 태안지역의 대표 해산물에 대한 영양과 기능을 연구하여 관광객
의 건강에 어떠한 기능과 효과가 있는지를 홍보함으로써 기능과 함께
가치지향의 소비활동을 창조할 필요가 있음

2) 웰빙을 주제로 한 테마형 체험숙박시설과 웰빙투어리즘 육성

- 태안군에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펜션이 형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여름철 성수기를 중심으로 운영
- 아름다운 해양자연경관은 “맘짱”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거점별 자연경관을 테마로한 웰빙형 체험숙박시설을 개발
 - 북부권은 천리포수목원의 이미지를 활용한 휴식+명상, 중부권은 장산옥천을 중심으로 한 온천+휴양, 남부권(안면도)은 꽃과 해변을 중심으로 한 아로마테라피+자연치유

사례 : 스위스 애시마을

- 스위스 호반도시 인터라켄(Interlaken)에서 동쪽으로 12km 지점에 위치
- 2004년 9월 현재 인구 1,978명, 이중 50여 가구가 농사와 함께 그린투어를 실시, 연간 6만여명의 도시민들이 내방
- 애시 농촌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무공해 천연치즈 만들기와 스위스 전통씨름 배우기
- 애시 치즈가 관광객들이나 도시민들에게 인기있는 것은 무공해 천연치즈라는 점 때문 (천연목초지, 풀을 먹은 소, 우유, 전통방식에 의한 제조)
- ‘스위스판 아마추어 민속씨름대회’, 산악자전거타기, 산악승마타기, 패러글라이딩, 산책과 등산, 라마 트레킹(Lama trekking) 등을 체험



자료 : <http://news.naver.com>

3. 웰빙컨셉을 도입한 공간 창조

1) 지역 특성과 이미지에 바탕을 둔 웰빙형 공간 개발

- 태안군의 독특한 농산어촌 자원, 특성 및 이미지에 바탕을 둔 자연체험 · 학습공간 개발
 - 해안과 접하고 있는 태안군은 아름다운 해안경관자원과 목장들이 산재함에 착안하여, 해안, 목장, 체험을 연계한 웰빙형 체험관광 목장을 개발
 - 단조로운 해안형 관광상품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친자연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태안군, 이용자, 관광객, 주민들에게 모두 이익

사례 : 강원도 홍천 웰빙-팜

- 홍천축산영농조합법인 (주)자연과 건강마을이 사업을 추진
- 단순히 채소나 나무를 심은 주말농장과 달리 계약자들은 500평의 토지를 분양 받고 사슴 한쌍과 매년 녹용과 장뇌산삼, 무공해 고랭지채소를 제공받으며 농장 내 직영으로 운영되는 숙박 및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
- 1차 분양의 성공과 함께 2차 분양 50필지를 15일 만에 마감하는 인기를 누림, 현재 3차 잔여필지 특별분양을 추진



자료 : <http://www.wellbeing-farm.co.kr>

2) 로하스(LOHAS)형 도시정주환경 구축

- LOHAS형 소비는 자신의 건강(Health) 뿐 아니라 후대에 물려줄 지속 가능한 소비기반(Sustainability)을 생각하는 소비패턴으로서 미국에서 LOHAS형 소비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웰빙소비패턴이 대중화의 길을 걸으며 이에 대한 경향과 추세에 부합되는 환경구축이 필요

LOHAS 정의를 위한 12개 변수

1. 친환경적인 제품의 선택	7. 재활용 제품 사용
2. 주변에 친환경제품의 유익 홍보	8. 전체사회관점의 삶 영위
3. 지속가능제품에 20%추가비용 제공	9. 제품구매시 글로벌차원의 영향 고려
4. 환경 보호에 적극적	10. 재사용될 수 있는 원료 사용
5. 지속가능기법으로 제조된 제품 선호	11. 지속가능한 농업기법 선호
6. 원재료 제품 선호	12. LOHAS공유하는 기업제품 선호

① 환경 친화적 요건에 적합한 건축 추진

- 환경 부하의 절감(Low Impact) : 에너지 소비삭감과 유효이용, 자연 및 미이용 에너지의 이용, 자원의 유효이용, 폐기물 삭감
- 주변환경과의 친화(High Contact) : 지역, 지구의 생태적 풍요로움과 순환성을 배려,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배려, 내외 연관성의 배려
- 주거 환경의 건강과 쾌적(Health & Amenity) : 주택의 amenity 향상, 주택의 안전/건강성 향상, 풍요로운 집주성의 달성

② 환경친화적 건축을 위한 계획 및 설계기법 도입

- 인간 삶을 건축에 반영 : 사용자 요구 중심의 설계 지향, 설계/시공 과정에 거주자 참여, 사용자의 생애 주기, 일일주기 고려, 미래 사용자의 고려, community 형성에 주력
-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기법 : 지역 기후의 특성 고려, 일사/통풍 등의 외기후와 경사도, 식생등의 자연지형의 잇점을 고려한 배치, 지역성, 맥락(context)고려(지역문화, 건축적 특성), 역사적 보존(전

통건축, 경관보존 및 재생), 보행자 우선의 도로계획, 자전거 도로 확충, open space확보

③ 친환경 외부공간 조성기법 도입

- 자연/토양의 보존, 포장의 최소화, 우수(雨水)침투 유도, 투수성 포장, 생태적 식재(bio-top과 같은 녹화기술), 친수공간조성(분수, 실개호 조성), 건물최피녹화(도시경관 향상, 에너지 절약, 내구성 증진)

④ 기타 친환경적인 관련기술의 도입

○ 건물 형태 및 구체 결정 기법

-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 사용(부착온실, 축열벽, 축열지붕 등), 자연채광, 통풍을 고려한 평/단면 계획,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건물 형태, 열적 완충 공간 조성, 교체/갱신을 고려한 설계, 고품자, 장애자 대응관계(universal 빌딩), 가변성이 큰 구조/형태(life cycle에 따른 공간, 설비 변경), 표준화, MC설계(폐자제 절감, 수명연장)

○ 실내 쾌적 환경 조성 기법

- 인체에 무해한 내장재, 천연소재 선택, 차음·방음에 대한 배려(외벽, 바닥, 천정의 다층구조), 결로, 곰팡이, 진드기 등의 발생 방지(내/외부 온도차를 줄이고 기밀성을 높인다), 환기유도 시스템, 실내 정원 조성, 전자기파 차단

○ 설비 및 공급처리 시스템

- 오염물질 발생최소화, 정화처리, 고효율, 절약형 기기 사용, 설비형 태양열 활용, 태양광 발전, 미이용 에너지 활용(하천수, 지열, 지하수열의 냉/난방 활용), 건축물 설비체계의 인공생태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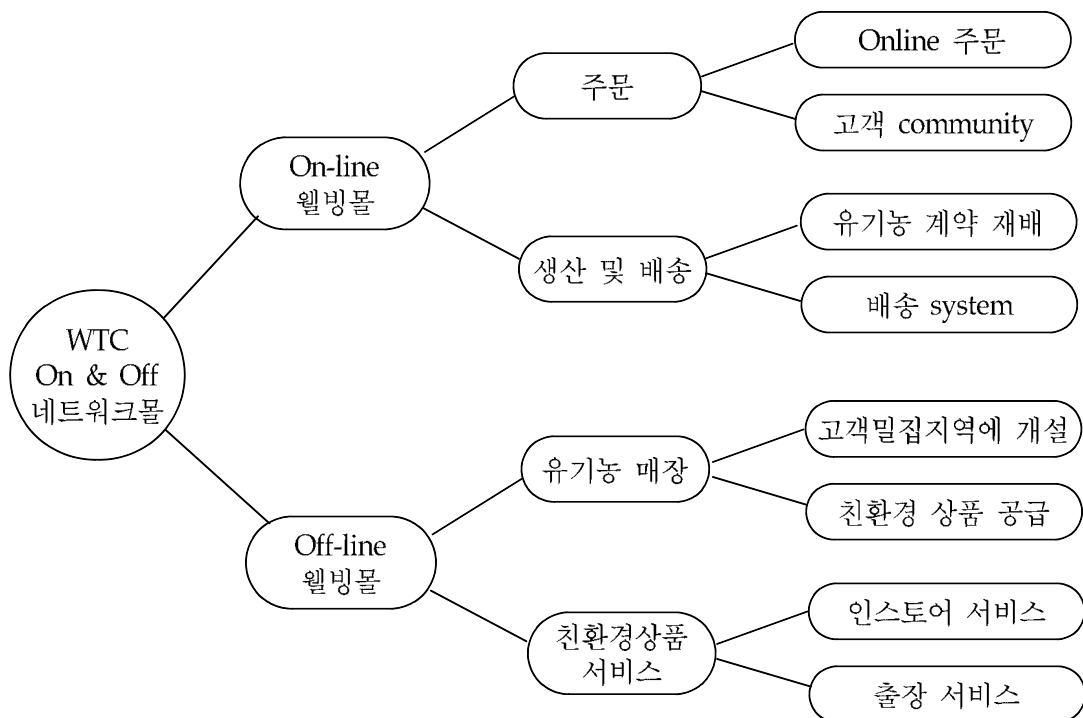
○ 재료, 구법 및 유지관리

- 내구성이 크며 재활용 가능한 재료·부품사용, 자연소재·재활용소재 활용, 표준화 재료/부품사용, 재료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적은 재료/부품 선택, 유지관리 교체가 용이한 내/외장재·구법 선택, 환경부하 절감 건설 공법의 사용, 폐자재 재활용 기술 개발

4. On-Off라인을 통한 웰빙 네트워크 구축과 마케팅 추진

- 웰빙상품의 성공요소는 상품에 대한 가치성과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
- 소비자간, 소비자와 태안웰빙시티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태안군 농산어산촌과 서울·수도권, 대전광역시권, 기타 도시지역의 자매결연을 통한 특산물, 휴양자원을 연계한 도시와 교류 및 해양체험 관광 활성화 촉진
 - 태안군 주도 하에 “(가칭) 웰빙 태안” 사이트를 개설, 태안군 웰빙상품을 홍보, 판매하는 웰빙마케팅의 장으로 활용
 - 태안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웰빙비법, 얻을 수 있는 웰빙제품, 웰빙족을 위한 사이버 커뮤니티, 최신 웰빙뉴스 등을 소개

On-Off라인을 통한 WTC 네트워크 구축맵



<참고문헌>

- 강원광장, “생명·건강산업과 웰니스관광”, 이봉희, 2004.5/6
- 김영한, 임희정, “웰빙마케팅”, 다산북스, 2004.10.28
- 김현주, “짧은 글 긴 생각 : 길 잃은 웰빙(Well-being)에게”, 국토연구원 국토, 2004
- 대한상공회의소, “최근의 웰빙문화 트렌드와 기업의 대응”, 2004.4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2003
- 이남희, 독자와 함께: 우리도 “웰빙”대열에 끼어보자, 국토연구원 국토, 2004
- 이미숙, “생활양식으로서의 웰빙(Well-Being): 이론과 적용의 뿌리 찾기”, 배재대학교 사회학과, 2004.6
- 장성철, “멀티테라피 색채와 휴머니즘의 실현 - 웰빙과의 연관성을 통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문화일보, ‘웰빙 열풍’ 산업계 휩쓴다, 2004.1.5
- _____, ‘생활 속 웰빙’ 배워보세요, 2004.5.19
- 여행신문, 여행에도 ‘웰빙’ 바람, 2004.2.6
- 연합뉴스, 주5일제에 웰빙...주말농장 인구급증, 2004.4.27
- 전자신문, 올 추석 선물 트렌드는 실속과 웰빙, 2004.9.7
- 파이낸셜뉴스, 車마케팅도 ‘웰빙’ ...가족 온천욕 즐기며 불쇼이 발레도 보고, 2004.3.11
- _____, 공장도 ‘웰빙’ ...잔디밭 정원·중국풍 로비, 2004.6.30
- LG주간경제, 웰빙 열풍을 읽는 3개의 코드, 2004.2.18
- <http://www.wellbeing-farm.co.kr>